"경영권 양보 못합니다"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12일 수요일 제3278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86.65 (−16.52)

코스닥 732.26 (−14.08)

금리(국고채 3년) 1.76 (−0.02)

환율(원·달러) 1179.10 (+15.40)

개인택시 선거혁명

늘 시끄럽던 조합 선거, 모바일 투표로 '신기원'
서울개인택시조합, 5만명 대상 잡음없는 첫 선거
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 부정선거 여지 차단

투표권자가 5만명에 달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조합장 국철희)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투표'를 성공적으로 마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권자가 수만명 단위인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를 깨끗이 마무리한 예는 극히 드물어 '개인택시가 선거의 신기원을 일궜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선거 등 민간 부문에서의 선거와 투표관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선거도 대선이나 총선처럼 특정장소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가 도장을 찍는 식의 옛 관습대로 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이나 건강, 일상업무 등 때문에 본의 아니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인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의욕을 떨어드리고 궁극적으로 일부 세력에 의한 패거리 선거 또는 부패선거로 이어진다.

국민 대다수가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기존 선거의 문제점은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점을 의식해 진작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 보급과 홍보에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개인택시조합이 5만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한결 힘을 얻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대선과 총선같은 전국 단위 공적 선거에도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2015년 제1차 조합원총회 투표'를 모바일과 현장투표소(17개 지부사무실·8개 복지충전소·조합본부)에서 실시했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4만9052명 가운데 3만2623명(66.51%)이 참여했다. 이날 투표에서 대의원 정수 확대(45→90명), 고정수당과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대의원의 무보수 명예직화 등을 담은 정관개정안이 찬성 3만1065명(95.39%)으로 통과됐다.

모바일 이용자는 2만1595명으로, 투표소 이용자(1만1028명)의 두 배에 달했다. 과거 총회에서는 참여자가 적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바일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총회 개막전 제기되던 투표율에 대한 우려를 말끔이 씻어냈다.

택시조합이 활용한 모바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이다.

2013년 개발된 이 시스템은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단체의 투표인수에 따라 1인당 500~700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투표소 설치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투표자는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선관위가 발송한 휴대폰 문자(SMS)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된다. 개표도 선관위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부정개표 의혹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투개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한 투표결과 검증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부정투표자에 의한 방해를 차단하고 1인 1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시스템 제공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중앙회, 수협조합중앙회 등 법령에 따라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 등이 있는 기관·단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등이다.

하지만 그간 이 시스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선거일수가 수천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에 활용되는데 그쳤다. 5만여명의 투표에서 사용된 예는 없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조합의 중요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이지만 개인 택시라는 직업의 특성상 한날 한때 같은 장소에 조합원 5만명을 모으는 것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그간 비리·부정선거 등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젠 모바일 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법원에서도 모바일투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어앞으로도 이사장 선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바일투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국철희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조합원 뜻대로!

비리와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관개정에 성공했다. 선두에는 국철희 조합 이사장이 있었다.

과반이 넘어야 성사되는 이번 총회에서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성공의 핵심은 모바일투표 도입이었다. 업무 특성상 한날 한시에 5만명의 조합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으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평조합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해 안건을 선정한 것도 이번 모바일투표 성공에 한몫했다.

국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7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 출신의 후보자였고, 서울대를 나와 반월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전에는 법인택시를 몰며 운수노보를 제작하고 택시노동운동의 기획을 전담하는 등 택시노동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국 이사장이 2003년 개인택시를 시작할 당시 조합은 각종 비리로 평조합원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택시의 위상도 나날이 추락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는 개인택시의 노령화를 막겠다며 70세 이상의 택시기사 퇴출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까지 빼길 위험에 처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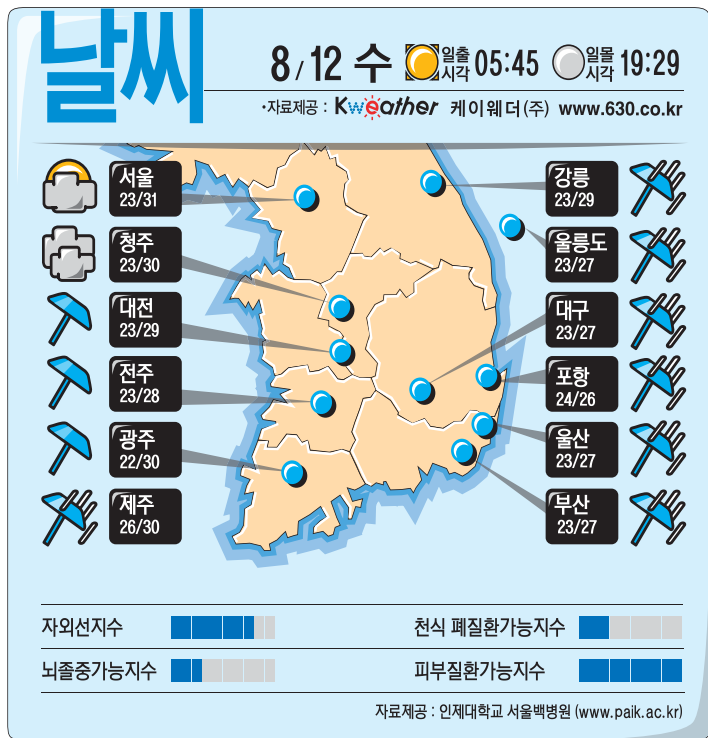
17대 보궐선거도 앞서 후보자들이 불법자금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돼 무산된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그러자 그는 '조합원이 원하는 개혁, 조합원 뜻대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사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자금도 다른 후보의 10분의 1 수준인 5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걱정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 이사장은 택시요금 현실화, 70세 연령제한 삭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이전 조합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다. 그간 비리의 온상이었던 복지충전사업을 조합에 공개하는 등 투명 운영을 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번에 조합원의 뜻을 모아 모바일투표를 성공시키고 잘못된 정관을 고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잘못된 것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산업

▲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60)회장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문과 수습책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그룹의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연말까지 80% 해소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중장기적인 지주사 전환을 약속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반격 공세가 'L투자회사'를 넘어 일본 내 롯데계열사로도 번지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L투자회사의 모회사이자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6곳에도 변경등기 신청이 들어갔다. 6곳의 사업부문 계열사는 주식회사 롯데·롯데상사·롯데부동산·롯데물산·롯데전략적투자·롯데아이스 등이다.

▲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이 리빙 상품군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CJ오쇼핑은 12일 토탈 리빙 브랜드 '**보탬**'을 론칭한다.

▲ **오비맥주**가 떨어지고 잇는 시장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고한 영업망과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오비맥주의 다(多) 브랜드 전략이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현상을 불러 올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스마트워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워치에 맞서 삼성전자가 원형 스마트워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갤럭시 기어 시리즈를 선보이고 발 빠르게 스마트워치 시장을 공략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 삼성그룹을 이끄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상장계열사까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는 물론 해외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11일 쉐보레 **임팔라**의 연간 판매량을 2만대로 예상했다. 또 부평공장에서의 생산을 목표로 정했다. 임팔라의 가격은 3409만~4191만원으로 이달 말부터 출고된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4월 10%에서 7월에는 7.3%까지 떨어졌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최대 900만원을 깎아주는 대규모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 **임지훈** 다음카카오 신임 대표가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임 내정자는 모바일 사업과 해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내정자는 다음달 23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한다.

정치

▲
북한의 **목함지뢰** 공격에 허를 찔린 우리 군은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공세작전으로 전환했다.

▲ **사형제** 폐지를 위한 7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제는 사형폐지법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가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54) 변호사를 확정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광복 70주년을 앞둔 12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린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다.

▲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사회

▲ 1000여개의 '**저탄소 인증제품**'을 책자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다양한 저탄소 인증 제품에 관한 정보를 담은 탄소성적표지 정보집을 발간했다.

▲ 진보 지식인들이 **광복 70년**을 맞아 헌법 정신 회복과 친일잔재 청산,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등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 10여 년간 **무자격**으로 590명에게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구매 대리인이었던 전모씨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 때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 등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 제조 비용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다.

지상최대 헌책방 축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부지에서 열린 헌책방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서울도서관은 매주 토요일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리던 '한 평 시민 책시장' 행사를 오는 16일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부지에서 운영한다. /연합뉴스

국제

▲ **구글**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본격적인 기술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시작했다.

▲ **일본 롯데**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건은 결의 대상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중국 인민은행이 수출기업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전격적으로 1.86% 절하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급상승, 원화 등 아시아 통화가치가 줄줄이 급락했다.

▲ **중국 지도부**가 최근 증시 폭락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물어 증권 당국 책임자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정부가 올해초부터 사형수 장기 적출과 이식을 금지했지만 불법적인 **장기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종전기념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사비를 들여 공물만 봉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79.1원으로 마감해 전일 종가보다 15.9원 올랐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2012년 6월 5일(종가 1180.1원) 이후 3년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 현장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 6월 말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

▲ **저축은행**이 7년만에 흑자를 시현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현재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을 조사한 결과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 당기순이익이 50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가 반등했다. 정유·화학 업종은 올해 2분기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유가 불안정 등에 가뭄 장세를 이어왔다.

신격호의 반격, 일본롯데 계열사로 확대

L투자 9곳 이어 사업부문 6개 계열사도 등기변경 신청
인정 시 일본롯데 다시 신동주 손으로… 기각땐 소송전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2)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반격 공세가 'L투자회사'를 넘어 일본 내 롯데계열사로도 번지고 있다.

11일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L투자회사의 모회사이자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6곳에도 변경등기 신청이 들어갔다. 6곳의 사업부문 계열사는 주식회사 롯데·롯데상사·롯데부동산·롯데물산·롯데전략적투자·롯데아이스 등이다. 현재 이 6곳은 등기정리 중으로 등기의 발급·열람이 불가능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일에도 12개의 L투자회사 중 9곳에 이의제기 성격의 등기변경 신청을 했다. (본지 8월11일자 '신격호 반격 시작, L투자 9개 다시 등기변경' 기사 참조) 당시 이 6곳의 사업장에도 동일한 작업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부문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사업장까지 확보해 신동빈(61) 회장의 행보를 막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달 8일 일본에 입국 한 신 전 부회장은 주말이 지나고 10일 월요일 오전 신 총괄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9곳의 L투자회사에 신 총괄회장 대리자격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6곳의 일본 롯데 계열사에도 등기변경을 신청해 신동빈 회장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12개의 L투자회사는 7월30일까지 9곳(L1·2·3·7·8·9·10·11·12)의 대표이사에 신 총괄회장이, 3곳(L4·5·6)의 대표에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등기돼 있었다. 하지만 7월31일부터 12개 모두에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 /연합뉴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으로 출국 전 이를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는 신동빈 회장의 단독행위라고 밝히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친 등기변경이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승인과 위임장 등을 근거로 법정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법정싸움으로 번진다면 신 총괄회장에게 급격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달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 총괄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주주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사실상 이사회를 비롯해 한·일 롯데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신 회장이 L투자회사의 등기부에서 삭제되고 일본롯데의 계열사에서도 배제된다면 신 회장의 주총에서의 상징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이 투자는 물론 사업부문의 인사에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신 총괄회장의 위상은 올라가게 된다.

11일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롯데홀딩스 지분이 1.4%수준임을 밝혔다. 기존 업계를 통해 알려진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의 조치는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일 이번 등기변경 신청으로 신 회장이 등기에서 제외된다면 주총을 갈 필요도 없이 패배가 확실해진다. 이는 법무성이 등기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일 등기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 신동빈 회장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신동빈, 대국민 사과 통해 개혁안 제시

"호텔롯데 상장, 순환출자 연내 80% 해소"

경영투명성 제고에 최선
중장기적 지주회사 전환

한일롯데 분리 고려 안해
경영과 가족 문제는 별개

日 롯데홀딩스 17일 주총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최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60)이 그룹의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연말까지 80% 해소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중장기적인 지주사 전환을 약속했다.

신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과 수습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롯데에 대해 느낀 실망과 우려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롯데호텔에 대해 일본 계열회사들의 지분비율을 축소할 것"이라며 "현재 남아 있는 순환출자의 80% 이상을 연말까지 해소시키겠다.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 작업에는 자사의 2~3년치 순수익 규모인 약 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 회장은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룹 내에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T)를 출범시키겠다"며 "기업문화 개선위원회도 설치해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확대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며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일에 가려진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인 L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회장은 "투자 대상 기업인 한국의 롯데호텔이 급격히 성장했고 2000년대 접어들어 투자기업인 일본 롯데제과 등이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을 분할하면서 투자부문에서 남은 법인들이 오늘의 L투자회사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롯데 분리에 대한 질문에는 "2개 회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협력 관계를 없애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형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타협 여부에 대해선 "경영과 가족의 문제는 별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 일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는 이달 17일 개최된다.

관련기사 15면

/박상길 기자 sweatsk@

신동빈·동주, 5년간 배당금 732억 챙겨

영등포 롯데역사서 각 366억씩

신동주(61·사진)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 롯데그룹 회장이 코레일 민자역사(영등포 롯데역사)에서 최근 5년 간 732억의 배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동주-신동빈 형제는 영등포 민자역사에서 각각 366억원씩(각 지분율 8.73%)의 배당금을 챙겼다.

김 의원은 두 형제가 대부분 대주주로 있는 롯데계열사의 민자역사 배당금이 22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챙긴 수익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영등포 민자역사는 2010년과 2011년 배당이 당기순익대비 7~8%에 불과했으나 2012년 273%, 2013년 1061%로 급격하게 배당비율을 높였다.

/박상길 기자

구글 지배구조 개편… 미래 기술혁신 탄력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창업자는 혁신에 집중
자회사 전문경영 맡겨

구글 독립자회사와 사업분야

자회사	경영인	사업분야
구글	선다 피차이	검색, 광고,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네스트	토니 파델	스마트홈
칼리코	아서 레빈슨	바이오 헬스케어
파이버	미정	브로드밴드 인터넷
구글벤처스	빌 마리스	벤처캐피털
구글캐피털	미정	자산투자사
구글X	세르게이 브린 아스트로 텔러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개발

구글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수익성 높은 검색 사업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미래 혁신기술 분야의 사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본격적인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다.

구글은 10일 (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구글 사업이 모두 잘 되고 있지만 사업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새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의 이름은 알파벳(Alphabet Inc)이다. 알파벳은 산하에 구글, 네스트, 칼리코, 파이버, 구글벤처스, 구글캐피털, 구글X 등 자회사들을 거느린다. 주력사업인 검색, 광고,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웹사업은 구글에 남고, 이른바 문샷(달탐사선)으로 불리던 연구와 투자부문이 따로 독립하는 형태다.

'달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대신 아예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겠다'는 문샷싱킹은 그동안 구글이 추구해온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상징한다. 구글의 경영방침은 '기존 방식에서 10%를 개선하려 애쓰는 것보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10배의 혁신을 추구한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구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투자자들이 비판을 받아왔다. 문샷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전 구글 임원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연구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투자자들에게) 숨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 창업자들도 문샷에 관심을 돌리느라 주력사업인 웹사업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과거 페이지가 "구글은 앞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처럼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사업에 베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WSJ도 버크셔해서웨이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모델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페이지와 브린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철을 밟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독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기술시장을 선도하는 데 실패했다. "단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뿐 대부분 기업들이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편하게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차세대 성장을 이끄는 기술산업에서는 안주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껴야 한다"는게 페이지의 소신이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전문경영진에게 맡기고 페이지와 브린은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페이지는 알파벳 최고경영자(CEO)를, 브린은 알파벳 사장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구글의 실험적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구글 사업 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미국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7% 가까이 급등했다. 구글은 앞으로 수 개월에 걸쳐 알파벳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이건희·최태원 법 잣대 달라"

지검장 출신 이한성 공개비판
최태원 사면 환영에 與 '진땀'

지검장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의 입에서 우리나라 법의 잣대가 재벌 간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마약국가, 마피아 국가란 닉네임을 달고 있는 콜롬비아나 이탈리아와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이한성(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모 재벌 회장과 최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9년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아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세보다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당시 금액은 227억원인데 평가 금액을 훨씬 낮춰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비하면 5년 뒤인 작년에 선고됐던 최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 아마 그 당시 다른 재벌 회장의 배임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이라며 "(최 회장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당장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은 다 복원시켜 피해를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모 재벌 회장이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가리킨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 삼성SDS 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을 면한 이 회장은 그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 회장 특사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전날 논의한 사면안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제외되고 최 회장은 사면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박 대통령은 13일 최종결정까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송병형 기자 bhs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사형제 폐지 7번째 도전… 이상민 "이번엔 방치 않을 것"

<법제사법위원장>

172명 서명법안 법사위 상정

사형제 폐지를 위한 7번째 도전이 11일 국회에서 막이 올랐다. 이상민(사진)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의원 172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이 상정만 됐다가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지만 이제는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15대국회 이후 20년 동안 6번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는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는 의원들이 찬성한 만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날 대표발의자인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생명은 다른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존의 근거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며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 사형제를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유신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연이 있다. 그가 사형제 폐지에 적극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공안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흉악범 사건이 사형제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이뤄진 사형 집행도 '지존파'라는 흉악범 사건이었다. 지존파 일당 23명은 연쇄살인 후 인육을 먹은 엽기행각을 벌였다. 이후 유영철·오원춘 등의 흉악범이 계속해 나왔지만 사형선고를 받았을 뿐 집행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로 불린다. 다만 범죄 억지를 위해 제도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검사 출신의 의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검사 출신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할 수 있는가"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병형 기자

"무력충돌 불사" 최전방 전운

화력 보강, 유사시 즉각 보복

북한의 목함지뢰 공격에 허를 찔린 우리 군은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공세작전으로 전환했다. 북한의 무력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며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1일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측 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날 최전방 2곳에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보복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수단과 도발시 이를 응징할 수 있는 화력장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즉각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군은 확성기 주변에 CCTV와 적외선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방송이 없는 지역에도 K-4고속유탄기관총, K-3기관총, 90㎜무반동총을 보강 배치했다는 전언이다.

우리 군은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국지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또 DMZ 내 작전이 북한군을 격멸하는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되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병형 기자

재벌 광복절특사 끊이지 않는 논란

"형평성 문제" vs "기업 지배구조 탈바꿔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틀 앞둔 11일, 법조계에선 기업인 특사에 대한 여러 견해로 갈등이 일고 있다.

특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인 사면에 앞서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 기업인 특사는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들이라고 사면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경우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는 민생관련 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들은 사면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특사는 법치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총수 사면이 이런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국화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기업 총수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며 "사법처리의 권한을 갖고있는 기관의 판단을 대통령 자신의 특권으로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간담회'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재계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반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특사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된다.

이동우(법무법인 호연) 변호사는 "특사가 기업인과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예컨대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횡령·배임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일반인들은 생활 범죄, 혹은 단순절도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업인의 부재 상태로 인수합병과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은 대기업이나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업 총수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면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업인 특사에 찬성하는 입장은 35%, 반대하는 입장은 54%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말복 더위와 코스모스 말복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코스모스가 핀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단체 "양심수 석방 촉구"

63명 명단 법무부에 제출

진보성향의 시민·노동단체들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이들의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11일 민주노총 등 37개 진보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치인과 재벌 총수 특별사면을 중단하고 민중을 위해 싸우다 투옥된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 공감대를 벗어난 사면은 안된다'고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면서 "이제 와서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을 사면하면 사법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가 진정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하는 등 자유를 위해 헌신한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비리 재벌 사면 반대 및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광수 전빈련 국장의 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2012년 화물연대 파업 주도자 등 63명의 사면복권 신청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미란 기자 acto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으로 늘린다

연말까지 개정 추진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확대되는 등의 보험 가입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일 후 6개월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1년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시기를 놓쳐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이 자동해지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연속 체납해야 해지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2012년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6399명으로, 50인 미만 자영업자 378만명의 0.4%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강제로 징수하는 체납처분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가입자 우대방안도 검토한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이나 업종전환을 할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야간 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서이 기자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 때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 등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 제조 비용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져 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김서이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 관리 '헌법불일치'

헌재 "기본권 침해… 종류·특성에 따라 차등화해야"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관리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정 시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된다.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 등록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만큼 개정시한을 두는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헌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같은 법 42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2(위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몰카 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고, 신상정보 관리가 재범 억제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등 공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범죄 특성이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진을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도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모가 쉽게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이에 대해 1년마다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예외 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17년 恨' 다시 미궁 속으로

의문투성이인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1998년 10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귀가 중이던 당시 대학 신입생 정양이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다 트럭에 치어 숨진 사건이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이 이뤄지는데, 각각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건 정황을 상세히 아는 증인이 등장해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가 예측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0년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DNA법(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꼬리가 잡혔다.

2013년 정양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면서 K씨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죄 공소시효가 끝나기 한달여 전인 2013년 9월 이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빚어졌다. 정양의 유가족이 사법기관에 100여 차례 진정을 접수하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자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 사건 해결에 나섰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을 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죄에 무리하게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의 무죄 판결도 이 지적과 맞닿아 있다. 특수강도강간을 적용하려면 물건을 빼앗거나 훔쳐 달아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며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정은희양의 사건 당시 현장. /정은희양의 추모공간 홈페이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개점 반대"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해 현대백화점 판교점 개점에 반대하고 나선 판교지역 상인들이 1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보상 및 상권활성화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엉터리 전자투표시스템 제공

개발업체 부사장 불구속 기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인 '케이보팅'이 사실상 보안에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가 2년 가까이 진행됐다.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는 핵심 보안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중앙선관위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보안기술이 있다고 속여 회사 지분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업체 I사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KT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보안기술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여 I사 지분과 경영권을 K사에 13억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는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운영한 케이보팅 시스템의 보안 솔루션을 맡았다.

I사는 보안 유지를 위한 투표함 개표권한 분할과 투표값 암호화, 위변조 여부 검증에 필요한 투표정보 코드화 및 분산 보관 등 세 가지 핵심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보안기술을 실제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추가 기술개발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까지 이들 보안기술 자체가 케이보팅에 탑재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13년 10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선거제도 4대 원칙과 IT 온라인 투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다"고 홍보했다. 금융투자협회·기자협회 등 각종 단체 대표와 아파트단지 동대표 선출부터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청중평가단 투표까지 38만여명이 참여해 330여건의 전자투표가 이뤄졌다.

케이보팅의 보안 시스템이 엉터리인 사실은 지분을 넘겨받은 K사가 박씨에게 속아 지분을 샀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투표값을 변경해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I사는 기술을 개발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오는 12일까지 투개표를 중단하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구석구석

광복 70주년
다시 보는 대한민국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위대한 여정을 걸어왔고
그 곁에는 당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지금

떠나세요
가장 쉬운 나라사랑은 국내여행입니다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Korea Travel Hotline

8월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광복 70주년 기념 무료 혜택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4일)
- 4대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개방(8월 14일-16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참조 (http://summer.visitkorea.or.kr)

LG그룹株, 하반기 상승 모멘텀 되찾나

LG화학, ABS 수급 개선의 대표 수혜주… 반등 기대
하반기 IT 성수기… LG디스플레이·LG이노텍 주목

| 마켓인사이트 |

최근 부진을 면치 못했던 LG그룹주가 모처럼 탄력을 받고 있다.

LG화학,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주력 계열사들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G그룹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LG화학은 국제유가 상승 소식에 보합으로 마감했다. LG화학의 주가는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LG화학의 주가는 올해 들어 38% 이상 상승했다.

LG이노텍의 주가도 이틀 연속 상승했다. LG이노텍은 전일대비 0.24% 오른 8만3100원에 마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LG전자의 주가는 이날 4만원에 턱걸이하며 장을 마쳤다.

LG전자는 전일대비 0.74% 하락한 4만원에 마감했다. 지난 5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LG전자는 이날 장중 한때 3만9950원까지 내려갔다가 가까스로 4만원대를 지켰다. LG전자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LG그룹주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도가 높아진 상태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지난 2분기에 호실적을 올린 LG화학은 하반기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LG화학 오창공장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라인에서 연구원들이 배터리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LG화학 제공

최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5634억원으로 57% 증가했다"면서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와 시장 평균 추정치(컨센서스)를 각각 7%, 10%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LG화학의 올 하반기 영업이익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기능성 화학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소형전지와 중대형 전지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동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틸렌) 가동률이 올해 75%, 2016년 79%, 2017년 82%, 2018년 85%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며 "LG화학은 ABS 수급 측면에서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기업 실적 개선)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LG화학의 ABS 생산능력은 165만톤으로 대만 치메이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원재료 통합 이점을 통해 실제 판매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LG화학은 ABS 수급 개선의 대표 수혜주"라고 분석했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의 하반기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권성률 동부증권 연구원은 "오는 9~11월이 IT 산업의 최대 성수기로 가동률과 실적 개선이 가장 눈에 띄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2분기보다 실적 개선 가능성, 하반기 IT 계절성, 텅텅 비어 있는 수급, 역사적 최저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IT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를 언급했다.

LG이노텍은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노의 매도'가 마무리되면 가장 빠른 반등이 기대된다고 권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또 "LG디스플레이는 TV 재고가 6월에 정점을 찍었고, IT용 패널 가격 하락세가 이미 8월부터 둔화되고 있어 주가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위안화 절하' 소식에 급락

5개월만에 2000선 붕괴
코스닥도 2%대 떨어져

코스피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에 5개월 만에 2000선 밑으로 밀려났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2포인트(0.82%) 떨어진 1986.6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섰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급속하게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12억원, 152억원어치를 처분했다. 개인은 738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의약품(-3.90%), 증권(-3.68%), 음식료품(-3.68%) 등이 낙폭이 컸고 종이목재, 은행 등도 2%대 떨어졌다. 반면 통신업(1.64%)과 전기전자(0.86%), 철강금속(0.49%) 등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3.25%), NAVER(2.35%), 삼성전자(1.40%), POSCO(0.52%) 등이 상승했고 아모레퍼시픽(-3.49%), 한국전력(-1.95%), 현대모비스(-0.72%)삼성생명(-0.5%)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2%대 하락하며 730선으로 주저앉았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4.08포인트(-1.89%)떨어진 732.26을 기록했다. 개인이 449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3억원, 229억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음식료담배(-4.25%), 제약(-3.89%), 기타제조(-3.23%) 등이 내렸고 섬유의류(2.93%), 오락문화(1.42%), 금속(0.49%) 등은 상승했다.

시총 상위종목은 대부분이 내렸다. 셀트리온(-4.17%), 다음카카오(-1.69%), 파라다이스(-1.10%), 서울반도체(-0.32%) 등이 하락한 반면 CJ E&M(0.87%)과 CJ오쇼핑(0.83%) 등은 올랐다.

/김보배 기자 bobae@

위안화 평가절하 파장 '예의주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하락압력 작용할 듯

11일 중국 인민은행(PBOC)이 달러·위안(USD/CNY) 기준환율을 대폭 끌어올려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자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다양한 셈법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1.86% 높은 달러당 6.2298위안으로 고시했다. 이같은 위안화 평가절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0.7% 하락 이후 최대 낙폭이다.

중국은 수출이 줄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등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자 이같은 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에 아시아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각각 0.42%, 0.82% 떨어졌다. 호주의 S&P/ASX 200지수는 오후 4시57분 현재 0.58% 하락중이다. 홍콩의 항셍지수는 0.03%, H지수는 0.16% 내리는 중이며 상하이종합지수는 0.01%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추가 하락을 점치면서 향후 아시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시장불안을 당기는 방아쇠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7월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과 함께 수출악화와 생산자물가 하락폭 확대 등 경기 둔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위안화 절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달러화 강세·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이머징 통화 약세폭이 확대되자 중국 정부로서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향후 관심은 위안화의 추가 약세 여부"라며 "위안화 추가 약세시 소위 글로벌 환율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보배 기자

국제유가 급등에 정유-화학株 '방긋'

유가 불안정에 가뭄 장세
주가 탄력 여부에 관심↑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가 반등했다. 정유·화학 업종은 올해 2분기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유가 불안정 등에 가뭄 장세를 이어 왔다. 깜짝 반등한 이들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유화는 전 거래일 대비 2.51%(3500원) 오른 14만3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대한유화는 전날 11.43% 하락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22.5%가 빠졌지만 국제유가 반등 소식에 상승 전환했다. 롯데케미칼(3.11%), SKC(2.6%), OCI(0.33%), 휴켐스(0.22%), 유니드(1.27%), 코오롱인더스트리(2.21%)도 일제히 올랐다.

LG화학은 종일 2%대 상승하다 장 막판 쏟아진 매도물량에 22만2500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한화케미칼과 금호석유도 종일 상승분을 반납하고 각각 1만9150원, 6만1000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와 BP의 공장 가동 중단 소식에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09 달러(2.48%) 오른 44.96 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도 1.8 달러(3.7%) 오른 배럴당 50.42 달러로 마감했다. /김보배 기자

中 위안화 평가절하에 亞 통화 급락

원·달러 환율 3년來 최고
국내시장에도 중요 변수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영향으로 아시아 통화가치가 일제히 급락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9원 오른 달러당 1179.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2012년 6월 5일(종가 1180.1원) 이후 3년2개월 여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일보다 4.2원 내린 1159.0원에 출발했지만 크게 요동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180.5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는 위원화 평가절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이날 오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1.86% 높은 6.2298 위안으로 고시했다.

사실상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것이다.

위안화의 기습적인 평가 절하 조치로 대만 달러화(-1.3%)와 싱가포르 달러화(-1.3%) 등 아시아권 통화들이 대부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원·위안 환율 종가는 전날보다 1.9원 떨어진 위안당 185.2원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추가 절하 여부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이후 제자리 걸음을 보이던 위안화를 전격적으로 약세로 유도한 배경에는 하반기들면서 중국 경기불안 리스크가 재차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위안화 절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향후 관심은 위안화의 추가 약세 여부"라며 "위안화 추가 약세시 소위 글로벌 환율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석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로 글로벌 환율전쟁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라며 "특히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 원화 역시 위안화에 동조화 현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홍 연구원은 "달러·원(USDKRW) 환율은 지난 2012년 기록했던 1180원대 중반 레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중기적으로는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 전망과 맞물려 빅 피겨(big figure)인 1200원까지도 상단을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약세 가능성에 대해선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위안화 절하 배경에는 수출부진과 신흥국 대비 위안화 강세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달러·원 환율 상승에는 오버슈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은 인민은행보다 연준의 결정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안 연구원은 또 "만약 추후 절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계단식 절하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인하 이외에 해외에서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는 중국이 위안화를 일방적으로 약세로 끌고 가기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한국씨티은행·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한국씨티은행은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씨티가족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짓기 활동은 의미 있는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의미에서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마련됐다. /씨티은행 제공

핀테크 1인 창업자 사무공간 무료 지원

우리은행 '우리핀테크나눔터' 입주자 모집

우리은행은 11일 복합사무공간 '우리핀테크나눔터'에 입주할 1인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핀테크 분야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신관에 위치한 우리핀테크나눔터는 사무실을 비롯해 세미나룸과 회의실, 미팅룸까지 갖춰져 있다.

또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와 제휴해 입주자 모집 등 원활한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입주자는 9월 10일까지 한 달간 모집하며, 최종 선정된 1인 창업자는 10월 1일부터 사무공간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이 지난 3월 핀테크 스타트업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우리핀테크늘품터 (fintech.wooribank.com)' 또는 '핀테크지원센터(www.fintechcenter.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핀테크사업부 관계자는 "은행별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지만 1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준비하게 됐다"면서 " 앞으로도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은행장들, 태극기 들고 거리로

금융권, 광복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이벤트

시중은행장들이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나라사랑의 뜻을 되새기고 알리기 위한 전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줬다.

이번 '태극기 사랑' 행사는 여의도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7대도시에서 열린다.

국민은행은 7000장의 태극기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한편 이날부터 16일까지 1148개 모든 영업점에서 태극기를 게양키로 했다.

아울러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KB락스타 챌린지 독일 탐방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윤 행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다"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 역시 태극기를 들고 명동으로 나왔다.

이날 임직원, 대학생 홍보대사 등 40여 명과 함께 거리에 선 조 행장은 일반시민, 청소년 등에게 고급 태극기 2000여개를 선물했다. 또 태극기 게양과 나라사랑 실천을 당부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한 직원은 "광복 70주년으로 더욱 의미 깊은 올해 태극기를 나눠주는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뻤다"며 "비록 무더위로 땀범벅이 됐지만, 기쁘게 태극기를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뭉클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오른쪽 맨앞)과 임직원들이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에 대한 애정과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이상이 담긴 태극기를 통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청계천광장과 명동에서 고객이 직접 꾸미고 사진도 찍는 무궁화 포토월(Photo Wall)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복절 당일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에서는 무궁화 그리기 등의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백아란 기자

'분식회계' 대우건설 철퇴… 건설업계 당혹

금융당국, 과징금 20억원 부과 '중징계'
대우 "최악의 상황 가정한 것뿐… 억울"

금융당국이 감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대우건설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감리위에서 결론 짓지 못한 정확한 분식 규모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 후 확정된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안은 공사손실충당금이다. 이 충당금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또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대우건설이 지난 2012년 회계에 포함된 70개 사업장 중 10여개(합정 사업장 포함 5000억원가량)에서 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점들이 지적받았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을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일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대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2013년 당시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내부 문건을 금감원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면서도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문서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이 부분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업계 특성상 수년이 걸리는 공사를 초기부터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업계 관례상 충당금을 과도하게 잡을 수는 없다"며 "대체로 건설사는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회계처리를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로 징계한다면 앞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대형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확정한 점을 보면 이번 사안은 분명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당국이 너무 늦게 이번사안을 결정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광교 중흥S-클래스 조감도. /중흥건설 제공

'광교 중흥S-클래스' 14일 견본주택 오픈

중흥토건, 분양 돌입
2019년 5월 입주 예정

중흥건설 계열사 중흥토건은 오는 14일 '광교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C2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에는 지하 5층~지상 49층 15개동 등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63㎡ 2231가구, 오피스텔(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은 전용면적 72~84㎡ 230실로 구성됐다. 상업시설(광교 어뮤즈스퀘어)은 전용면적 4만399㎡(호수 미정) 규모다.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호수를 끼고 있는 이 단지는 경기도 신청사(예정)와 컨벤션센터(예정), 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해있다. 인근에 매원초교와 다산중, 연무중, 광교고, 찬현고, 유신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단지 옆에는 이의구초(2018년 하반기 개교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수원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M버스를 통해 서울 강남이나 서울역, 광화문 등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내년 2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중앙역(가칭)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현장인 광교신도시 C2블록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9년 5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제2롯데 공사 소홀' 롯데건설, 법정 선다

산업안전법 109건 위반 기소
롯데건설, 50여건 혐의 부인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 현장 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 6월 말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

롯데건설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109건에 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외에도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지난해 4월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혐의 109건 중 50여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낙하방지망의 경우 건설산업법에 있는 다른 자재를 활용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4월 12층의 배관 이음매 폭발로 인부 1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2월에는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 중 추락사고로 인부 1명이 추가로 숨졌다.

/김형석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뉴시스

삼부토건, 3000억 대출원리금 연체

"법정관리 대신 자산 매각"

삼부토건은 11일 3190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연체는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전날 공시한 연체액까지 합하면 총 1조2633억원을 만기에 갚지 못했다.

앞서 우리·신한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삼부토건과의 자율재무구조개선 협약(자율협약) 연장을 거부하며 대출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자산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연 17%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삼부토건측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보다는 향후 채권단과 협의해 르네상스호텔 등 의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국토부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제시

주택기금 50%↑ 출자 리츠
재무재표 연결대상서 제외
50% 미만도 대주주면 제외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해당 리츠에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준모델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빠진다.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해도 주택기금이 대주주이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1~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보다 높은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표준모델은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3차례에 걸친 국토부 질의와 회계기준원의 회신을 통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관련 위험이 감소됐다"며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3차 공모사업을 시행해 뉴스테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삼성 '원형 스마트워치'로 애플에 도전장

디자인·기능 업그레이드 이르면 '갤럭시 언팩'서 공개 세계시장 주도권 경쟁 예고

삼성전자 원형 스마트워치 UI 이미지. /삼성투모로우

삼성전자가 다시 스마트워치 시장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다.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애플워치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원형 스마트워치 공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이르면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5·S6 엣지 플러스(가칭)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국제가전박람회(IFA)를 통해 선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하는 스마트워치는 코드네임 '오르비스'로 360×360 해상도의 원형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와 타이젠 운영체제(OS), 엑시노스 3472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젤(원형 테두리)을 돌려 각종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롱텀에볼루션(LTE) 지원·무선인터넷·근거리이동통신(NFC)·심박센서 등의 기능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원형 디스플레이의 스마트워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워치에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기능도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갤럭시 S6·S6 엣지 등 일부 플래그십 스마트폰만 삼성페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삼성페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워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애플워치와 주도권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갤럭시 기어 시리즈를 선보이고 발 빠르게 스마트워치 시장을 공략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현재 스마트워치 시장은 지난 4월 출시된 애플워치가 장악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은 약 400만대의 애플워치를 팔아 점유율 75%를 기록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판매량과 점유율은 각각 40만대, 7.5%에 그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배터리 성능과 편의성 개선 여부가 관건"이라며 "애플워치와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삼성전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지방경제 살리기' 팔 걷은 삼성, 100억원 푼다

광복절연휴 근무직원 대상 온누리 전자상품권 지급

삼성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의 내수 촉진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구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은 이번에 구매한 상품권으로 직원들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광복 70주년 연휴 기간(8월 14~16일)에 근무하는 직원과 제조직 직원 등이다.

삼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매년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계열사와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품권은 주로 임직원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돼 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삼성은 전국 각 지방 경제로의 낙수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각 지역 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우체국과 함께 마련했다.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은 13일 삼성 임직원들이 이번에 지급받은 상품권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삼성은 우체국과 협력해 결제 시스템을 간편화하고, 임직원들의 지역 특산품 구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온누리 전자상품권 100억원 구매로 삼성이 올해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매한 상품권 규모는 총 600억원으로 늘었다. /조한진 기자

고객들이 싱가포르 베스트 덴티 가전 매장의 이안시티점에서 삼성전자 SUHD TV로 상영되고 있는 단편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SUHD TV로 현지 숨결 전하다

싱가포르서 공감 마케팅

삼성전자는 건국 50주년을 맞은 싱가포르에서 초고화질(UHD) 단편 영화 3편을 제작, 이달 말까지 50여개 주요 가전 매장에 전시된 삼성 SUHD TV를 통해 상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세 명의 영화 감독 지망생이 각각 싱가포르와 자신의 삶, 추억 상자로 비유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유학생의 삶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공한 NX1 카메라로 다큐멘터리 형식의 단편 영화를 UHD로 촬영했다

김광진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상무는 "이번 행사는 재능 있는 영화 인재들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에 SUHD TV로 생생한 숨결을 불어 넣는 특별한 프로젝트"라며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마케팅으로 프리미엄 TV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인구 500만 규모의 작은 시장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5만 달러 이상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적인 '테스트 베드'로 꼽히고 있으며 프리미엄 TV의 판매 척도로도 활용되는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싱가포르에서 시장조사기관 GfK 7월 기준, 평판 TV 시장 점유율 41.2%(매출기준)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한진 기자

삼성전자, 세계 첫 256Gb V낸드 양산 성공

SSD 동일 크기·용량 2배 소비전력 30% 이상 절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56기가비트(Gb) 3차원 V낸드 양산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56기가비트 V낸드는 삼성전자의 3세대(48단) V낸드 기술이 적용된 업계 최고 용량의 메모리 칩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256기가비트 V낸드는 칩 하나만으로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32기가바이트(GB) 용량의 메모리카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존 128기가비트 낸드가 적용된 SSD와 동일 크기를 유지하면서 용량을 2배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3세대 V낸드는 셀이 형성될 단층을 48단으로 쌓고 나서 약 18억개의 원형 홀을 수직으로 뚫은 다음, 총 853억개 이상의 셀을 고속 동작시킨다. 각 셀마다 3개의 데이터(3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 총 2560억개의 데이터를 읽고 쓴다.

3차원 원통형 CTF 셀 구조와 48단 수직 적층 공정, 3비트 저장 기술을 적용해 2세대 V낸드보다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저장하고 소비 전력량을 30% 이상 줄였다. /임은정 기자 euni71@

LG전자 "캠핑족에게 음악 선물합니다"

'포터블 스피커' 무상 대여

LG전자는 오는 23일까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어라운드 빌리지'에서 캠핑족을 대상으로 LG 포터블 스피커 무상 대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라운드 빌리지에 머무르는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빌리지 내에 있는 어라운드 카페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여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면 자유롭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의 포터블 스피커(모델명 NP7550)는 콤팩트한 사이즈에 20와트 고출력 사운드를 지원하고, 한번 충전 시 최대 9시간까지 사용 가능해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사용하기 편리하다. 독자 기술인 'LG 오토 사운드 엔진'으로 작은 볼륨

모델이 LG전자 포터블 스피커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으로도 생생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고,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탑재돼 중저음 사운드를 더욱 풍성하게 들려준다. /조한진 기자

LS산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2014 비전 어워즈'서 금상

LS산전은 자사의 '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최한 연차보고서 경연대회 '2014 비전 어워즈'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LS산전의 '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8개 평가 항목 중 디자인, 메시지 전달능력 등 6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 총점 98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새 미션 '퓨처링 스마트 에너지'를 디자인으로 구현해 스마트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혁신적 가치를 표현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분야 별 주요 성과와 활동을 부담 없이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은정 기자

한국지엠 "쉐보레 임팔라, 그랜저보다 좋다"

엔진 2가지·외장색 3가지 리터당 복합연비 10.5km 연간 2만대 판매전망

한국지엠이 국내 준대형차 시장에서 그랜저의 대항마로 쉐보레 임팔라를 출시하고 연간 2만대 판매 목표를 내놓았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1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임팔라 신차발표회를 통해 "국내 출시 임팔라는 미국 모델보다 프리미엄 사양이 많이 적용됐고 가격은 더 싸다"고 소개했다.

호샤 사장은 "세련된 디자인과 힘찬 주행성능, 가격경쟁력 3박자를 갖춘 차"라며 "현대차의 그랜저와 아슬란, 기아차의 K7 등과 비교해 자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페온이 연간 4000~5000대 팔렸는데 임팔라는 3~4배 더 팔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임팔라의 성공으로 속히 부평공장 생산을 통해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플래그십 세단 쉐보레 임팔라(Impala)를 출시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어 "국내 고객에게 다양한 차량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지엠은 한국에 남을 것"이라며 "쉐보레는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개발된 모델을 활용해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 2주 후 트랙스 디젤을 출시하고, 이후 다른 디젤 모델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에 따르면 임팔라는 동급 최대 전장(5110mm)에 18~20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했다.

외장은 흰색(퓨어 화이트), 은색(스위치 블레이드 실버), 검정색(미드나이트 블랙) 등 3가지다.

늦으면 내년 초, 이르면 올해 안에 색상이 추가될 예정이다.

엔진은 △최대출력 309마력, 최대토크 36.5kg.m의 3.6리터 6기통 직분사 엔진과 △최대출력 199마력, 최대토크 26.0kg.m의 2.5리터 4기통 직분사 엔진 두 가지다.

캐딜락의 대형세단 XTS에 적용된 3.6리터 직분사 엔진은 가속성능과 내구성을 인정받은 제너럴모터스의 프리미엄 파워트레인이다.

2.5리터 직분사 엔진에는 스탑앤 스타트 시스템을 적용해 고른 가속성과 고효율을 추구했다.

둘 다 6단 자동변속기로 리터당 복합연비는 3.6리터 9.2km/L(고속 12.0km/L, 도심 7.7 km/L), 2.5리터 10.5km/L(고속 12.5km/L, 도심 9.3 km/L) 수준이다.

차체에는 상부와 하부 프레임을 연결한 통합형 바디 프레임을 적용해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로 충돌 안전성을 높였다.

또 앞좌석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포함해 총 10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고, 운전석과 동반석 무릎 에어백을 채택했다.

아울러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실내공간에 11개의 스피커를 장착했다.

임팔라의 국내 판매가격은 △2.5 L LT 3409만원 △2.5L LTZ 3851만원 △3.6L LTZ 4191만원이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중국서 출혈경쟁 불가피

中 토종업체 저가 공세에 SUV 즈파오 등 가격 인하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차는 올해 중국 토종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부진의 늪에 빠졌다. 13년 만에 맞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대응책은 대폭 가격인하를 통한 '출혈경쟁'이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71% 감소한 13만9000원에 마감했다. 3월 18만7000원까지 올랐던 현대차 주가는 연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아차는 전거래일과 동일한 4만1950원에 마감했다. 5월 기아차 주가는 5만27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이러한 주가의 흐름은 부진한 판매실적에 따른 결과다. 현대차는 7월 중국에서 5만4160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2.4% 감소했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기아차는 같은 기간 3만8대 판매해 33.3% 줄었다. 이 여파로 현대·기아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4월 10%에서 7월에는 7.3%까지 떨어졌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부진을 중국 토종업체의 저가 공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중국 전략형 모델 부족, 노후모델 증가, 중국 토종업체의 저가 제품 공세를 판매부진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대규모 할인 정책을 내놨다. 기아차 중국법인인 둥펑위에다기아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파오(구형 스포티지)의 가격을 5만위안(한화 938만원)을 내렸다. SUV 즈파오(스포티지R)도 2만위안(375만원) 할인된다. 현대차의 중국법인 베이징현대는 투싼(ix35)을 2만3000위안(431만원)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는 여전히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을 찾고 있다. 또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점유율 1위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업체도 할인 공세에 나섰다. 지엠은 최대 5만4000위안(1018만원)을 깎는 덤핑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할인공세 후 가격인상이 쉽지 않아 건설 중인 중국 4·5공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허베이성 창저우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4공장을 착공했다. 5공장도 연산 30만대 규모로 충칭시 량장신구에 건설 중이다. 현대차의 7월 중국공장 가동률은 1분기 100%에서 2분기 80%대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연비와 성능이 개선된 모델 투입과 신규 트림 출시 등을 통해 부진을 탈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700여개인 중국 내 딜러를 내년까지 2000여개로 늘릴 방침이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모든 메이커는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가격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로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상황에 연계한 유연한 가격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포지셔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11일 현대차그룹 측은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는 청년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의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한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 청년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을 앞둔 종업원들을 위해 재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자기계발,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년퇴직 후 안정적인 삶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근로자대표와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동참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연간 1000개 이상의 청년고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금피크제 시행과 청년고용 확대는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해 회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젊은 인재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현대차 "연비왕에 도전하세요"

1등 엑센트 디젤 상품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직접 자동차의 연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참가자를 11~31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는 현대차에서 현재 시판 중인 전 차종(상용 제외) 보유 고객이 대상이다.

급코너와 경사도가 높은 서킷으로 구성된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진행한다.

현대차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보유 중인 차명, 동반 가족수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본선 진출자 150명에게는 3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최종 결승전에서 전 차종 통합 연비왕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엑센트 디젤을 수상할 예정이다.

또 통합 연비왕 2, 3등 및 각 부문별 1~3등에게 상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현대차, 딘 에반스 영입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HMA)은 딘 에반스(사진) 전 미국 스바루 마케팅 담당을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은 디지털 마케팅 강화 등을 위해 에반스를 발탁했다. 오는 17일부터 합류할 예정이다.

에반스는 25년 이상 자동차업계에서 디지털마케팅과 딜러십 등 경력을 쌓았다. 폰티악 영업에서 출발해 크라이슬러와 랜드로버 딜러십 매니저로도 활동했다.

데이브 츄카프스키 현대차 미국법인 사장은 "에반스가 디지털마케팅과 딜러십 등에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현대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신사업 모멘텀 부재 맥없는 삼성그룹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상장계열사 매출 감소

애플·샤오미 등에 밀려 스마트폰 사업도 흔들

삼성그룹이 신사업 모멘텀 부재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상장계열사까지 모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 삼성그룹 주요 상장계열사 12곳의 매출은 130조1043억원, 영업이익은 12조2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0.1%, 영업이익은 26.1% 줄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정밀화학 등 5개사는 매출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은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전자 등 4개사다.

삼성중공업은 매출액이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올해 4조500억원으로 38% 감소했다.

그나마 올 상반기 삼성전자가 1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대비 17.86%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5조6800억원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매출액 감소는 삼성그룹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액은 2013년 141조2000억원에서 작년 122조5000억원으로 18조7000억원(13.2%)이나 줄었다.

이 여파로 그룹 전체 해외 매출은 215조5000억원에서 189조1000억원으로 26조4000억원(12.3%) 감소했다. 그룹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은 67.8%에서 62.4%로 떨어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삼성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의 공세에 밀려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은 애플에, 저가폰은 중국의 샤오미와 화웨이, 레노버 등에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스마트폰 사업마저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도 내년 D램 시장 규모 축소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해 지고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3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겠지만 IM부문을 포함한 나머지 전 부문의 영업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다"며 "IT제품 수요부진과 스마트폰 사업의 경쟁력 회복 지연으로 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이 2013년 스마트폰 사업의 최대 호황을 맞으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것처럼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경영 전략을 내놓지 못한다면 향후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NHN 엔터테인먼트

CJ CGV·KB국민카드와 핀테크 사업 상호협력

NHN엔터테인먼트가 CJ CGV, KB국민카드와 함께 '페이코(PAYCO) 및 파인테크(FINETECH) 카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사는 각각의 전문 분야인 정보기술(IT) 플랫폼, 모바일 문화콘텐츠, 금융 서비스의 장점을 살려 핀테크 사업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발굴 ▲ NHN엔터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KB국민 파인테크카드의 활성화 및 CGV와의 제휴 프로모션 추진 ▲ 3사의 채널을 활용한 제휴 비즈니스 모델의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3사는 제휴관계를 기반으로 페이코 연계 서비스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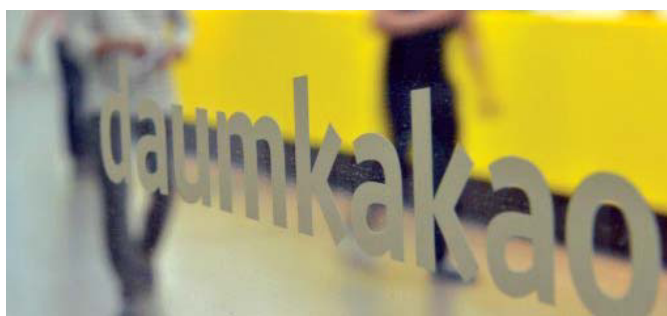
다음카카오 '가볍고 빠른 조직' 개편

다음카카오가 빠르고 도전적으로 모바일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젊은피를 수혈했다.

35세의 벤처투자 전문가인 임지훈(사진) 케이큐브벤처스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다음·카카오 합병 후 1년 가까이 유지된 이석우·최세훈 공동 대표 체제를 마감하고 9월부터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뀐다.

11일 다음카카오는 신임 대표에 임지훈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케이큐브벤처스는 올해 3월 다음카카오가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됐다. 다음카카오는 30대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에 강하고 속도감있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한다"며 "합병 이후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모바일시대에 맞춰 변화·혁신 주도할 것"

임 내정자는 다음달 23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한다. 주총이 끝나면 임원 인사도 곧이어 단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영진 개편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모바일 기업으로 거듭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임 내정자는 이미 카카오택시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주환(37)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뉴리더팀을 꾸렸다. 이들을 중심으로 다음카카오의 조직 및 사업 재편을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또 다음카카오가 이제까지 뚜렷한 성과를 못 낸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크다. 임 내정자는 평소 글로벌 스타트업 콘퍼런스에 자주 참석해 왔다. 그는 신임 대표 내정 발표 후 "다음카카오를 대한민국 모바일 기업에서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 리딩(선도) 기업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정보기술(IT)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에서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국민내비로 유명한 '김기사' 브랜드의 회사인 '록앤올'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또 다음카카오가 1000억원을 투자해 만든 투자회사 케이벤처그룹도 디지털기기 중고거래 전문기업 '셀잇', 자동차 외장수리 견적업체 '카닥' 등을 인수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을 필두로 한 모바일 시장 주도권 잡기에 적극적이다. 지난 1월 24시간뒤 사라지는 사진 메신저 서비스 '쨉'을 시작으로, 콜택시 앱 '카카오택시', 카카오TV, 카카오톡 샵(#) 검색, 모바일 블로그 서비스 '플레인', 실시간 여행정보 랭킹서비스 '트래블라인' 등을 잇따라 선보였다. 이 가운데 카카오택시는 8월 기준으로 기사회원수 13만명, 일일 호출수 21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콜택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한편 임 내정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NHN 기획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를 거쳐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심사역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이후 핀콘, 레드사하라, 프로그램스, 두나무 등 50여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그 중에서 수십배의 가치가 오른 기업들을 다수 배출하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문경 기자 hm0108@

한화 청소년오케스트라 무주서 음악캠프 진행

한화그룹(회장 김승연)과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는 10~12일 전북 무주 국립태권도원에서 한화 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진행한다.

이는 충청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인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총 110여명을 선발해 악기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캠프에는 청주와 천안 지역 학생 60여명이 모여 오는 11월 정기연주회에서 공연할 곡을 연주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포스코-KB금융, 포괄적 금융협력 MOU

포스코는 11일 KB금융그룹과 금융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사진)에는 윤종규 KB 회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비금융분야 지원 확대△공동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략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포스코는 KB로부터 금융 자문과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진출 가능한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또 포스코 임직원들은 신용대출, 자산관리 컨설팅, 은퇴설계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양사는 금융 외 분야에서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비 금융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해 향후 양사의 기업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한다. 양사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내실 있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사면초가 신동빈 "다 바꾸겠다 (나만빼고)"

신 회장, 국적 논란에 "롯데는 한국 기업" 재차 강조
경실련 "L투자 등 소유·지배구조 투명하게 밝혀야"

신동빈(60·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일본기업'이라는 반(反)롯데 정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있은 대국민 사과에서 롯데가 한국 기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이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면서 롯데 제품 불매 운동, 정치권과 사정기관에 대한 방어에 나선 것이다.

신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내에 상장된 8개 롯데 계열사의 매출이 롯데그룹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며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롯데호텔을 포함한 한국 롯데 계열사들의 일본롯데에 대한 배당금은 한국 롯데 전체 영업이익의 1.1%에 불과하다"며 "롯데호텔은 국부를 일본으로 유출한 창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호텔의 주요 주주인 일본 L투자회사도 "일본 자본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생긴 창구"라고 설명했다. "호텔롯데 설립 당시 일본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본의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해 2000년대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되면서, 투자부문의 법인들이 L투자회사들로 전환됐다"는 것이 신 회장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의 대부분을 일본 롯데가 갖고 있어 반롯데 정서를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호텔롯데의 지분은 L투자회사 72.65%, 롯데홀딩스 19.07%, 광윤사 5.45%, 일본패리미 2.11% 등으로 일본 자본이 99% 이상을 차지한다.

호텔롯데를 상장하게 되면 신주 발행과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매하는 방식으로 일본 지분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내 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20% 내외 수준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이 포함돼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아니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L투자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체와 광윤사를 포함한 정확한 주주들의 실체,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롯데그룹 지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의사결정 주체가 일본계 지분인지, 한국 측인지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CJ오쇼핑 '리빙' 상품군 강화 나선다

실속형 브랜드 '보템' 론칭
일반 브랜드보다 30% 저렴
TV 이어 대형마트 등 유통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이 리빙 상품군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CJ오쇼핑은 12일 토탈 리빙 브랜드 '보탬'을 론칭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탬은 생활 속에서 보탬이 되고 가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리빙브랜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납, 리빙 소품 등 주방·인테리어 카테고리와 구매 주기가 빠른 반복구매형 생활용품 카테고리 등 생활밀접형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브랜드 제품보다 최대 30% 정도 저렴한 가격대에 선보인다. 실속생필품과 주방, 인테리어 용품 등을 구매하는 고객의 가계경제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CJ 측은 전월세 세입자가 급증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확대되면서 셀프 인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에는 주로 백화점이나 브랜드 로드숍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리빙·인테리어 용품을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 네임밸류와 상품력이 있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홈쇼핑이 구매 창구로 각광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CJ측은 제품 특성에 따라 TV홈쇼핑과 CJ몰 채널 중 경쟁력있는 채널을 주요 판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 채널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종합온라인몰, 대형마트 등 타사 유통 채널을 통해서도 보탬의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을 통해 가장 먼저 선보일 제품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론칭하는 스툴 세트(7만9800원)다. 모던한 디자인으로 거실, 현관 등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배치해 놓을 수 있으며 신발과 가방, 아이들 장난감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온라인쇼핑몰인 CJ몰에서는 오는 9월 각종 생활용품을 대거 론칭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다용도 물티슈(80매·10팩, 1만2500원)와 라벤더 오일 및 마치현 추출물 등 피부 보습·진정성분을 함유해 연약한 아이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아용 물티슈(70매·10팩, 1만4500원), 두루마리 화장지(30롤·1팩, 1만2400원), 의류, 가구, 옷장 등 섬유와 공간에 뿌려 자연스러운 향을 풍기는 드레스 퍼퓸(500ml·1병, 6900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빨래건조대 기능을 결합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실용적인 이동식 행거와 침실과 거실, 주방에 세워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 등 리빙 상품과 지퍼팩, 키친타올, 쿠킹랩과 같은 주방 소모품을 순차적으로 론칭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광복 70주년 '물가안정 기획전' 11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지난 70년간의 각 세대별 인기의상을 착용한 모델들이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140개 점포에서 인기 생필품을 비롯해 약 70여 가지 상품을 1+1 또는 50% 할인해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한섬, 첫 잡화브랜드 '덱케' 매장 확대

8개 매장 신규오픈 예정

현대백화점그룹(대표 김영태)의 패션기업 한섬은 첫 번째 잡화 브랜드 '덱케(DECKE)' 영업망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늦어도 9월까지 서울 명동과 잠실 등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덱케 8개 신규 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단독 매장수는 기존 15개에서 23개로 편집매장(톰그레이하운드)을 포함하면 31곳을 운영하게 된다.

덱케 연간 매출은 100억원 규모다. 지난 7월부터는 월 평균 매출액이 1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박상길 기자

광복 70주년, 태극기 매출 '껑충'

11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이달 초(8월 1~5일) 태극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104%) 증가했다.

지난 7일 G마켓 베스트셀러에서도 태극기가 생활용품 부문 18위에 올랐으며 인기검색어에도 순위권에 랭크됐다.

G마켓 측은 이 같은 태극기 판매량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느 때보다 광복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구매비중은 30대(56%), 40대(27%), 50대(8%), 20대(7%) 순으로 높았으며 이 가운데 40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6% 증가했다.

성별로는 조사 기간에 전체 판매량 중 여성 구매 비중이 68%로 남성(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아이파크몰

/김수정 기자

놀부, 이연복 셰프와 손잡았다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대표 김준영)가 대가 이연복 셰프(사진)와 손잡았다.

놀부는 지난 10일 이연복 셰프를 '놀부 수석고문셰프'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놀부는 '요리 명인, 진정성 있는 장인'의 이미지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는 대가 이연복 셰프와 놀부가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데에 주목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한길을 고집한 장인정신과 노하우를 지녔다는 점에서 놀부와 이연복 셰프의 공동분모를 찾고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적극 추진했다.

/정은미 기자

'레베카 밍코프' 3종 백,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롯데마트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롯데 빅마켓에서는 미국 유명 브랜드 '레베카 밍코프' 백 3종을 13일 부터 빅마켓 5개점에서 각 149,0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뉴시스

오비, 多브랜드 괜찮나

시장 점유율 만회 목적
신제품 맥주 잇단 출시
업계, 자기시장잠식 우려

오비맥주가 떨어지고 잇는 시장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확고한 영업망과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오비맥주의 다(多) 브랜드 전략이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카니발리제이션은 기존에 출시됐던 제품이 같은 기업에서 출시된 새로운 제품에 의해 판매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모회사인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는 올해 2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오비맥주의 이 기간 매출 감소율은 (전년동기대비) 높은 숫자의 한 자릿수였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를 근거로 오비맥주가 2분기에만 매출이 전년비 약 7~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비맥주는 올 1분기에도 매출이 4% 감소했다. 오비맥주가 연속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오비맥주는 이 같은 매출 하락 이유에 대해 소비자의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수입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프리미어 OB'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에는 '프리미어 OB 바이젠', 지난달에는 '카스 비츠'를 선보였다. 오비맥주는 올 하반기에도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비맥주는 신제품 출시 외에도 AB인베브의 다양한 글로벌 맥주들을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이달에 선보인 '호가든 로제' '호가든 그랑 크루' '호가든 포비든 프루트' 등을 비롯해 올들어 영국 에일맥주 '바스'와 '보딩턴', 독일 밀맥주 '프란치스카너', 룩셈부르크 맥주 '모젤' 등을 새로 내놓는 등 거의 매달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내 맥주 시장 규모가 한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비맥주가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결국 오비맥주의 기존 제품들이 설 자리를 잃어 버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하이트진로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층 공략을 위해 2010년 '드라이피니시D'를 출시하고 기존 브랜드인 하이트와 맥스와 함께 시장 확대를 노렸다. 하지만 드라이피니시D는 기존 브랜드 간 수요 충돌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하이트진로의 맥주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려 오비맥주에 1위를 내줬다. 2010년 하이트 시장점유율은 55.8%였고 카스는 44.2%였다. 2012년 하이트(44.34%)는 카스(55.66%)에 역전 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가정 시장과 유흥시장에서 멀티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결국 시장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사 제품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브랜드 전략이 시장에 통해 1+1=2가 되면 좋은데 1+1=0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사히맥주가 이자카야 시장을 개척했고 칭다오 맥주가 양꼬치 시장을 공략해 맥주 시장에서 자리 잡았듯 오비맥주 역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은 소비자 입맛이 변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수익성을 떠나 다양한 맥주 맛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다브랜드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다브랜드 전략이 대중적인 브랜드인 카스가 기존에 유지하던 시장과는 구분되는 만큼 시장이 겹칠 것을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애경, 윤동주 '별 헤는 밤' 추석선물 선봬

애경(대표 고광현)이 기업이념인 '사랑(愛)과 존경(敬)'의 의미를 담은 추석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애경은 2015년 추석 종합선물세트에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시구를 디자인에 적용시켜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틋한 서정을 표현했다.

특히 '별 헤는 밤'의 시구는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송은주 작가의 감성적 캘리그라피로 디자인됐다.

'K-스트리트 푸드' 인천공항점 오픈

아모제푸드(회장 신희호)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4층 전문식당가에 'K-스트리트 푸드'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K-스트리트 푸드는 분식·치킨·라면 등 대한민국 대표 거리음식들을 엄선된 재료와 조리법을 토대로 즉석에서 조리해 선보이는 프리미엄 식음료 공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웅진 '빅토리아' 100일만에 200만병 판매

웅진식품(대표 최승수)은 탄산수 빅토리아가 출시 100일만에 판매량 200만병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선보인 빅토리아는 출시 2개월 만에 100만병이 판매되고, 이후 1개월만에 추가 100만병이 판매됐다. 하루 평균 판매량은 2만2000개 이상이다. 가장 많이 판매된 날은 12만병 이상으로 계속해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 APMAP 기획전

아모레퍼시픽미술관(관장 전승창)은 현대미술프로젝트 에이피 맵(APMAP)의 세 번째 기획 전시 '에이피 맵 2015 용인-연구자의 길(APMAP 2015 yongin-researcher's way)'을 10월25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야외 정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2015년 프로젝트 주제는 '연구자의 길(researcher's way)'이다.

락앤락 '그린메이트' 6기 모집

락앤락(대표 김준일)은 공식 대학생 써포터즈 '그린메이트' 6기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락앤락 그린메이트는 친환경 소비습관을 일깨우고 이색적인 마케팅 활동을 경험 해볼 수 있는 대학생 마케팅·홍보 대외활동으로 지난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5기까지 성황리에 활동을 마쳤다.

이번 6기는 환경과 소비재 홍보·마케팅 분야에 관심있는 전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가을 웨딩시즌 성큼… 할인전 풍성

이브자리·까사미아 등
혼수 가구·침구 할인
식기세트 신상품 출시

가을 혼수 시즌에 맞춰 가구·침구는 물론 화장품, 도자기 업계까지 신상품을 출시하고 관련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한국로얄코펜하겐은 10일부터 '프린세스웨딩 세트'와 '팔메테웨딩 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한식기 2인 세트와 찻잔·접시 등 신혼부부들게게 유용한 상품들로 구성했다. 행남자기도 다음달이나 10월 중 홈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할인이나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침구 업체 이브자리는 10월 말까지 이브자리 전국 매장에서 알뜰 혼수 이벤트를 연다. 혼수팡팡 더블찬스 이벤트와 구매후기 작성 이벤트 등 총 2가지로 진행, 이벤트 별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한다.

까사미아는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8월 혼수 & 이사 특집전을 전개하고 있다. 카라·블리스·메종·글래머 등 시리즈 별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 구매 금액대 별로 증정하는 사은품도 있다.

한샘도 이달 말까지 전국 한샘플래그샵·한샘인테리어 대형대리점과 일반 대리점에서 '윈스탑 쇼핑 이벤트'를 연다. 행사 기간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동시 구매하면 침대 프레임 전 품목을 5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매트리스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화장품 브랜드 SK-II는 이달 1일부터 4달 간 웨딩 세트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SK-II 부티크 스파 페이셜 트리트먼트 스파권(15만원 상당) 1매를 증정한다.

/김수정 기자 ksj0215@

CJ '햇반 컵반' 후속작 5종 출시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지난 4월 출시한 '햇반 컵반'의 후속작으로 신제품 5종을 11일 출시했다.

이번 선보인 제품은 '마파두부덮밥' '양송이하이라이스덮밥' '고추장나물비빔밥' '강된장보리비빔밥' '사골우거지국밥' 등 5종이다.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사골우거지국밥이 3480원이며 나머지는 각각 4150원이다.

햇반 컵반은 밥과 소스를 전자레인지에 1분30초~2분만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와 햇반만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컵 형태의 용기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韓·美서 휘날리는 色다른 태극기

그룹와이 '태극기 리디자인'展

韓·美 활동 예술가 70명 참여
서울·뉴욕서 21일까지 열려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 대표 편석훈)는 오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70인의 한국 디자이너와 함께 태극기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기리다 그리다 새기다'라는 타이틀의 이번 전시는 7~21일까지 서울 그룹와이 갤러리뚱에서, 14~21일까지는 뉴욕 Space Gabi에서 동시에 열린다.

그룹와이는 젊은층과 함께 무겁고 엄숙한 광복절 행사가 아닌, 광복의 기쁨을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의 감동을 나누고자 뉴욕에서 디자인, 순수미술,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크리에이터 그룹 '크리에이트(K/REATE)'에 협업을 제안해 함께 진행하게 됐다.

대한민국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태극기는 그 자체로 우리의 상징과 자존심이다. 이러한 태극기를 디자인의 영역에서 다룬다는 것은 일부

진스크(Jeansk) 'End, 그리고 And의 광복'

사람들에게는 상식 밖의 일이 되기도 한다. 태극기를 '지켜낸다는 관점'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지켜낸다는 것은 활용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디자인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태극기의 가치와 생명력은 높아지고 탄탄해질 수 있다. 또 그것을 디자인한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는 그 자체로 자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와이는 아티스트들의 이번 작품을 향후 패턴화해 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70년 전 광복을 이루던 그날에 휘날리던 태극기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듯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태극기를 그리고자 서울(35명)과 뉴욕(35명)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70인이 뭉쳤다.

제각기 다른 모습과 스타일 그리고 생각을 지닌 70명의 아티스트가 만드는 태극기는 어떤 모습일까?

디자인과 예술을 몰라도 다 같은 한국 사람이기에 즐길 수 있는 전시다. 그리고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한국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즐길 수 있다. '기리다 그리다 새기다' 전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온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는 뜻 깊은 광복 70주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와이 편석훈 대표는 "태극기 전시회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태극기를 패턴화한 디자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확산시켜 생활 속 애국심과 광복의 의미를 고취하고자 한다"며 "이 프로젝트는 그룹와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매년 온 국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감동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닮은꼴 질환' 심장-뇌혈관,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건강강좌·심포지엄 개최

이대목동병원뇌졸중센터(센터장:김용재·사진)는 오는 20일과 21일, 뇌졸중집중치료실 개소 10주년을 기념한 건강강좌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20일 오후 2시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심장병과 뇌혈관질환, 닮은 점이 많습니다'를 주제로 심장·뇌혈관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뇌졸중과 고혈압(송태진 신경과 교수) ▲심장병과 뇌졸중(이정은 건진의학과 교수) ▲뇌출혈의 진단과 치료(양나래 신경외과 교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운동(홍미성 몸연구소 강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건강강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교육상담실(02-2650-59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21일 오후 2시,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국내 석학들을 초청해 뇌졸중과 심장혈관 다학제 심포지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신경과, 순환기내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교수진이 연자로 나서 최신 지견을 나눌 계획이다.

/최치선 기자

에어아시아, 푸켓·발리 등 8만1000원부터~

누적 탑승객 3억 돌파 이벤트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는 지난 10일 누적 탑승객 3억 명을 기록했다. 에어아시아는 이를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누적 탑승객 3억명 돌파 기념 프로모션은 지금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출발하는 인천·부산~쿠알라룸푸르, 인천~방콕, 인천~마닐라, 세부, 인천·부산~칼리보 직항 노선은 물론 간편 환승이 가능한 에어아시아 그룹의 100여 개가 넘는 취항지의 노선이 해당된다. 예약은 에어아시아 웹사이트 (www.airasia.com)에서 오는16일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모든 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제세금이 포함된 요금이다.

인천 출발 직항 노선인 인천·부산~쿠알라룸푸르, 인천~방콕노선이 11만9000원 부터, 인천~마닐라, 칼리보 노선이 9만4000원부터, 인

천~세부 11만7000원부터, 부산~칼리보 노선도 8만1000원부터 시작한다. 동남아 인기 휴양지인 인천·부산~푸켓 노선이 8만9000원부터, 인천~발리 노선이 10만9000원부터,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페낭의 인천~페낭 노선은 10만90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최치선 기자

상명대 김종희(왼쪽 여섯 번째) 대외협력부총장과 육군본부 정제윤 소령이 교육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 제공

상명대, 육군본부 문화예술 인재 육성

14일까지 장교 20명 참여
KBS 등서 현장지도교육

상명대학교 영상·미디어연구소(소장 양종훈)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상명대와 KBS, 예술의 전당 등에서 육군본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육군본부 각 사단과 사령부 등에서 모인 정훈장교·군악장교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현장교육의 메카로 이름나 있는 상명대학교는 이번 교육에서도 이론강의는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현장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듣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상명대 양종훈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나대로 선생'의 이홍우 화백, 배우 박상원 씨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둘째날부터는 대학로, KBS, 국회, 예술의 전당 등을 방문하며 각 분야의 전문기자와 PD 등으로부터 현장지도교육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이론 강의보다는 실무위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니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이 종료되는 14일 낮 12시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수료증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가 그려진 교육 수료증을 받고 군인으로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현명 기자 hmbok@

"당장 여행 떠날 자신 있나요?"

KRT '나우챌린지'

결심만 하면 공짜여행 지원
인기 힘입어 정기행사 기획

여행바보 KRT(대표:장형조, www.krt.co.kr)가 지난달 17일 여의도 IFC몰에서 진행한 '나ow~ Challenge!(이하 나우챌린지)' 프로모션 영상이 누리꾼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KRT에서 진행한 나우챌린지 프로모션은 '여행에 나중이란 없습니다. 여행은 Now 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나 원하지만 언제나 뒤로 미루는 여행을 자신을 위해 바로 떠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여행을 좋아하고 떠나길 원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항상 마음속에만 있을 뿐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착안했다. 누구나 결심만 하면 KRT가 무상으로 여행을 보내준다는 프로모션 형식을 빌려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현대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다.

프로모션은 버튼을 눌러 영상 속 국기 3개가 일치하면 해당 국가로 다음날 여행을 보내주는 다소 황당하지만 파격적인 이벤트다.

'유럽여행 8박 9일 티켓 단, 출발은 내일! 떠날 자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영상에는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녹아 누리꾼 사

이에서 많은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끌고있다. 공짜 해외여행에 당첨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이유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쉬움과 용기를 갖고 떠나는 당첨자들의 인터뷰는 직장인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KRT 마케팅 관계자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지 못 하는 국민들에게 프로모션과 영상으로 위안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나우챌린지 프로모션은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행사로 기획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여행의 행운과 기쁨을 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T에서는 공식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나우챌린지 영상 공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다음 '나우챌린지' 행사 장소는 오는 9월 7일 KRT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KRT에서 진행한 '나우챌린지' 풀버전 영상은 네이버TV캐스트 와 유투브, KRT 홈페이지(www.krt.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한류 컨벤션 참석

걸그룹 **AOA**가 지난 2일과 8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에서 열린 북미 최대 한류 컨벤션인 '케이콘(KCON) 2015'에 참석했다. 빌보드, LA타임스, 보그, 얼루어 등 현지 매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뉴에이블과 전속계약

방송인 **예정화**가 iHQ의 매니지먼트 예능사업본부인 뉴에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관계자는 "보여줄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친구다. 연기를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늘의 동료 여교사

배우 **임화영**이 두 여교사와 제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여교사'(감독 김태용)에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유본컴퍼니가 11일 전했다. 극중 김하늘과 유인영이 연기하는 효주와 혜영의 동료 교사인 윤미 역을 맡았다.

권다현과 10월 결혼

힙합 그룹 에픽하이 멤버 **미쓰라진**(본명 최진·32)이 오는 10월 여자친구인 배우 권다현과 결혼한다. 미쓰라진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에 출연해 결혼 소식을 공개했다.

오는 27일 비공개 입소

배우 **박유천**이 오는 27일 비공개로 입소한다. 소속사 씨제스 측은 "조용히 입소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와 훈련소 측과의 조율을 통해 비공개 입소를 결정했다"고 11일 전했다. 오는 25일에는 김준수와 함께 팬미팅 행사를 연다.

"연기 만이 나를 간절하게 만들어"

영화 '협녀, 칼의 기억' 김고은

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김고은(24)에게는 영화 '협녀, 칼의 기억'(감독 박흥식, 이하 '협녀')의 작업이 그러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연기에 큰 애착을 갖게 됐다. 고통을 통해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부모 복수 위해 무술 갈고 닦은 홍이 역
전도연·이병헌과 호흡 날아갈 듯한 기분

육체적 고통 감내하며 혹독한 액션 소화
연기에 대한 간절함·애착, 감사함 느껴

'협녀'는 전도연, 이병헌이 16년 만에 재회한 작품으로 일찌감치 화제가 됐다. 김고은도 두 선배 배우와의 작업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김고은이 '협녀'를 선택한 것은 쟁쟁한 선배 배우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10년 정도 중국에서 살면서 접했던 친숙한 무협 장르, 그리고 비극적인 드라마에 끌렸기 때문이다.

'협녀'에서 김고은은 홍이 역을 맡았다. 부모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하며 무술 실력을 갈고 닦아온 소녀다. 친엄마처럼 따르는 월소(전도연)로부터 검술을 익혀온 홍이는 그러나 유백(이병헌)의 등장과 함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깊은 고뇌에 빠진다. 김고은은 "사람은 감정을 느끼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 생각 없이 무술 훈련을 하며 행복했던 아이가 감정의 데미지를 얻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액션이었다. 촬영 전 체력 테스트를 하던 날 오기가 생겨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 이를 본 신재명 무술감독은 최대한 대역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때부터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다. 무거운 칼을 들고 액션을 소화하는 것이 힘들었다. 육체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김고은으로 하여금 연기에 대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촬영 내내 단 하루도 몸이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웃음).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내다 보니 '내가 연기라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연기에 대한 간절함과 애착이 더 생겼죠. 사실 고통스러우면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무용을 포기한 것도 다리를 억지로 찢으며 예쁜 동작을 표현하는 게 힘들어서였거든요. 그런데 연기는 안 그래요. '협녀'를 촬영하면서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거든요. 돌이켜 보면 연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김고은은 어떤 일이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낙천적이고 털털한 성격이다. 하지만 연기에 있어서만큼은 늘 욕심이 생긴다. '은교'를 시작으로 '몬스터'와 '협녀, 칼의 기억', 그리고 '차이나타운'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필모그래피는 바로 그 욕심의 결과다. 김고은의 행보는 올 하반기에도 쉼 없이 이어진다. '성난 변호사'와 '계춘할망' 두 편의 영화 촬영을 마쳤고, 연말에는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으로 안방 데뷔도 앞두고 있다. 초심을 잃지 말 것, 그것이 바로 지금 김고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왜 배우가 되고 싶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려고 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맨 처음 연기를 왜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생각만큼은 지켜가고 싶거든요. 연기만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조직안정화로 세계 톱10 오케스트라 만들 것"

최흥식 서울시향 신임대표

최흥식(63) 서울시립교향악단 신임 대표가 "재단법인 출범 10년이 지난 서울시향이 요즘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이 고비를 잘 넘겨 세계 톱10에 드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1일 대표를 맡아 취임 40일을 넘긴 최 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나 고소고발 등 여러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시향을 사회적, 정치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음악으로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향은 지난해 말 박현정 전 대표의 직원 성희롱·막말 논란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정명훈 예술감독의 연봉과 처우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 예술감독의 업무비 횡령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 만료되는 정 예술감독의 재계약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 예술감독과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 그는 "현재 논의 중이라 자세한 말을 하지 못한다. 다만 9월 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 대표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프랑스 릴 제1대학과 파리 도핀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하나금융연구소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한 경영 전문가다. 클래식에도 조예가 깊다.

/김민준 기자 mjkim@

OFFICIAL SELECTION
FESTIVAL DE CANNES
제 68회 칸영화제 특별상
★★★★★
삶의 여정을
우아하게 탐구하는
걸작!
- CANNES
감동적이고 섬세한,
괴물 같은 작품!
- THE PLAYLIST
절묘한 유머와
드라마의 조합!
- HOLLYWOODREPORTER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할
어느 날
나의 어머니
mia madre
〈아들의 방〉 난니 모레티 감독 작품
8월 20일,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세이상관람가 수입·배급 (주)티캐스트 tcast cinecube

올해 최고의 드라마는

'미생' 등 후보작 24편 발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드라마어워즈 2015가 24편의 본심 진출작을 발표했다.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8개국에서 출품한 총 212편의 작품 중 예심을 통과한 24편의 작품과 개인상 부문 후보로 선정된 25명의 드라마 제작자와 배우들을 공개했다.

올해는 우수상 없이 단편, 미니시리즈, 장편 등 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1편씩 선정한다. 개인상 부문은 연출, 작가, 남녀 연기자 등 네 부문이 있다. 한국은 단편 부문에 '눈길', 미니시리즈 부문에 '미생', '나쁜 녀석들', 그리고 장편 부문에 '유나의 거리'가 이름을 올렸다. '미생'의 연출을 맡은 김원석 PD와 '킬미힐미'의 남자 주인공인 지성이 개인 부문 후보로 올렸다. 시상식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하희철 기자 hhc@

스크린으로 만나는 사도세자 이야기

| 제작보고회 | 이준익 감독 신작 영화 '사도'

송강호·유아인, 영조-사도세자 열연
"비극 속 아름다움 이야기하고 싶어"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세자. 임오화변으로 기록된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다. 여러 차례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올 가을 스크린을 통해 다시 관객을 찾아온다.

11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영화 '사도'(감독 이준익)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익 감독과 주연 배우 송강호, 유아인이 참석해 영화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계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준익 감독은 "이야기를 만들면서 도전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극이다. 그리고 비극의 목표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 감독은 "뒤주에 아들을 가둬 죽게 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그 심리와 감정에 대한 궁금증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이들의 상처와 갈등이 누군가에게는 큰 복으로 다가갔을 것이라는, 그래서 비극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영화 '사도'의 주연 배우 송강호, 유아인, 이준익 감독(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송강호는 영조 역으로 생애 첫 왕 연기에 도전했다. 40대부터 80대까지 영조의 반평생을 연기하기 위해 더운 여름 특수분장을 감내하며 영조의 깊은 콤플렉스를 표현했다.

그는 "영조는 형인 경종에 대한 독살설, 그리고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로 인해 정통성에 대한 고민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영화가 실제 일어난 사실에 기반했기에 영조 또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비운의 사도세자는 유아인이 연기했다. 그는 "꽉 막힌 뒤주에 갇혔을 때의 감정이 어떤 것일지 궁금했다"며 "배우이기에 체험할 수 있는 감정을 연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작품 중 가장 끌렸다"며 남다른 애착도 나타냈다.

'사도'에는 송강호, 유아인 외에도 문근영, 전혜진, 김해숙, 박원상 등이 출연한다. 오는 9월 추석 연휴에 맞춰 개봉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파리에서 맞이한 '머피의 법칙'

◆ tvN '내 친구와 식사를 합시다'

오후 11시

파리에서 맞이하는 둘째날, 스페셜 게스트들이 등장한다. 지훈과 희정이 합류하면서 여섯 친구들은 본격적인 유럽 먹방 여행에 나선다. 그러나 파리에서 조우하게 된 15년 지기 현진과 희본, 지훈은 '머피의 법칙'에 좌절한다. 일정을 잊어버리는 건 기본, 길을 못 찾아 시간에 쫓기다 급기야 파리의 거리를 질주하게 된다. 현진의 고집에 귀스타프 모로 미술관을 찾아 헤매다 기나긴 고생 끝에 미술관 입성에 성공하지만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한다.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남자를 울리는 기센 여자 유선-차예련과 기죽은 남자 김성균-김혜성이 출연한다. 명확한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네 사람은 감춰져 있던 입담을 솔직담백하게 선보인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다양한 색과 매콤달콤시큼한 향과 맛으로 오감을 깨우는 '태국음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허혁구 셰프가 특별출연해 태국음식의 A부터 Z까지 파헤쳐 본다.

◆ KBS1 '슈퍼 코리아의 꿈'

오후 10시

동북아시아 각 지역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허브로서 '슈퍼 코리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슈퍼 코리아'로 가는 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색해 본다. /정리=하희철 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저녁 55 2015 K리그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903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25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		15 위대한 조강지처 (4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7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7회)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63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재) 20 스쿨랜드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광복 70주년 특집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광복70년 특별기획 슈퍼코리아의 꿈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9회)	00 밤을 걷는 선비 (11회)	00 용팔이 (3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스파이더맨>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광복70년 특집다큐 이상설, 불꽃의 시간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획 다큐 <세계대전>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의형제> (재)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20 비정상회담 (58회) (재)	20 집밥 백선생 (13회) (재)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11회) 10 오늘 뭐 먹지? (31·54회)		50 삼총사3D	◆ 프로야구 (18:30) SK vs 롯데 (SPOTV+) 한화 vs KT (MBC SPORTS+) NC vs 넥센 (SKY SPORTS) 삼성 vs LG (SBS SPORTS) 두산 vs KIA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15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60회)	20 유미의 방 (6회) 30 현장토크쇼 TAXI (386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9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5회)	50 주문을 걸어 (3회)	00 나미브 사막의 코끼리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13회)	40 수요미식회 (29회)	50 2015 테이스티로드 (24회)	00 인간과 사자의 대결	00 무비스토커 (6회)	
22시			50 오늘 뭐 먹지? (58·85회)	00 항공사고 수사대 : 에어 크래쉬 (11회)	20 무비스토커:금주의 영화	
23시	00 냉장고를 부탁해 최고의 빅 매치 (6회)	00 내친구와 식사를 합시다 (2회)		00 <2차 세계 대전:대서양 전투> 프랑스의 참패		
24시	30 비정상회담 스페셜 (58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5회) (재)	00 로맨스가 필요해 2012 (5회)	00 위키드 튜나 4 (6회)	20 터미네이터 2	

박인비, LPGA 개인 타이틀 싹쓸이 보인다

상금왕 압도적 1위… 올해의 선수상도 유력
신인왕은 김세영·박효주 한국선수 접전 기대

박인비(사진)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개인 타이틀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한 LPGA 투어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부터 하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앞으로 남은 대회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을 포함해 11개다. 하반기라고 하지만 전체 31개 가운데 이미 절반이 넘는 20개 대회가 치러져 사실상 막바지로 치닫는 분위기다. 전반기 20개 대회 중 한국 선수가 12개 대회를 휩쓴 가운데 개인 타이틀 역시 대부분 한국 선수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LPGA 투어에서 시상하는 개인 타이틀은 시즌 최우수선수(MVP) 격인 올해의 선수상, 평균타수 1위 선수에 주는 베어 트로피, 그리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신인 선수에게 주는 신인왕 등이다. 별도로 시상하지는 않지만 상금왕과 다승왕도 주요 타이틀로 꼽힌다. 세계랭킹 1위도 LPGA 투어가 주는 상은 아니지만 시즌 종료 시점 1위는 뜻깊은 '타이틀' 중 하나다.

하반기 일정을 앞둔 11일 현재 이들 개인 타이틀 1위는 모조리 '여제' 박인비(27·KB금융)가 꿰차고 있다. 상금, 다승에서 1위이며 포인트로 순위를 매기는 올해의 선수와 평균 타수도 1위다.

박인비가 개인 타이틀을 모조리 석권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선 상금왕 경쟁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219만6982 달러(약 25억원)를 상금으로 받아 136만1194 달러(약 15억원)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한국 이름 고보경)를 크게 앞섰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 경쟁에서도 박인비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 235점으로 리디아 고(134점)를 100점 이상 앞섰다. 다승 경쟁에서도 2승씩을 거둔 리디아 고, 김세영(22·미래에셋), 최나연(28·SK텔레콤)보다 4승인 박인비가 유리하다.

박인비가 추월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은 베어 트로피가 걸린 평균 타수다. 69.391타로 리디아 고(69.639타)에 근소하게 앞선 1위를 달리고 있다. 스테이스 루이스(미국)도 69.750타로 3위, 김효주(20·롯데)가 69.877타로 3위에 올라 바짝 추격 중이다.

평균 타수 1위와 올해의 선수, 그리고 상금왕 등 3개 주요 타이틀을 석권하는 '트리플 크라운'은 아직 한국 선수가 밟아보지 못한 경지다. 전성기 때 박세리(38)나 신지애(27)도 3개 타이틀 가운데 한두개만 차지해봤을 뿐이다. 2008년 이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3관왕 3연패를 달성한 이후 2011년 쩡야니(대만), 지난해 루이스 등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2103년에는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을 차지하고도 베어 트로피를 루이스에 내줬다. 2012년에는 상금왕과 베어 트로피를 거머쥐었지만,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는 루이스에 밀려 두번이나 아깝게 '트리플 크라운'을 놓친 바 있다.

LPGA 투어가 시상하는 주요 개인 타이틀 가운데 하나인 올해의 신인상(신인왕)은 한국 선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시즌 2승을 올린 김세영이 신인상 포인트 976점을 받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김효주가 947점으로 추격 중이다. 둘 사이 격차가 29점으로 좁혀져 남은 대회에서 접전이 예상된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이대은, 日 프로야구 첫 한국인 10승 투수 눈앞

지바 롯데, 재계약 고려

이대은(26·지바롯데 마린스·사진)이 일본프로야구에서 뛴 한국인 중 최초로 한 시즌 두자릿수 승리 달성을 눈앞에 뒀다.

이대은은 올 시즌 9승(2패)을 거두며 퍼시픽리그 다승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앞으로 1승만 챙기면 한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일본프로야구에서 10승을 거둔 투수로 기록된다.

일본에서 한 시즌 최다 선발승을 기록한 한국 투수는 고 조성민이다. 1998년 요미우리 자이언츠 선발로 나서 전반기에만 7승을 거두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올스타전에서 오른 팔꿈치를 크게 다쳐 그대로 시즌을 마감했다.

선동열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임창용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다 일본으로 건너가 각각 주니치 드래건스와 야쿠르트 스왈로스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이상훈 두산 베어스 코치도 주니치에서 셋업맨으로 활약했다.

일본프로야구에서 선발 투수의 성공 기준인 10승을 채운 한국인 투수는 아직 없다.

구대성은 2001년 오릭스에 입단해 구원투수로 주로 뛰며 7승 9패를 거둔 뒤, 2002년 선발로 전환했다. 2002년 평균자책점 2.52로 퍼시픽리그 평균자책점 2위에 올랐으나, 승운이 따르지 않아 5승(7패)에 그쳤다. 구대성은 2003년과 2004년 6승씩을 거둔 뒤 미국 무대로 떠났다.

이대은은 10일까지 선발로 7승, 구원으로 2승을 거뒀다. 시즌 성적은 9승 2패 평균자책점 3.29다. 불펜으로 뛰다 선발로 복귀해 치른 최근 2경기에서 13⅓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낼만큼 구위도 살아났다.

지난해까지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이대은을 영입해 성공을 거둔 지바롯데는 벌써 재계약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희철 기자

PGA챔피언십 앞둔 매킬로이 "발목 상태 100%"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26, 북아일랜드·사진)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골프대회인 PGA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발목 상태가 100%라며 '건재함'을 드러냈다.

11일(한국시간) 골프닷컴에 따르면 매킬로이는 "다시 축구 경기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에는 100% 준비됐다"고 밝혔다.

매킬로이는 지난달 초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왼쪽 발목을 다쳐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에 이어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까지 포기하고 한 달 가량을 쉬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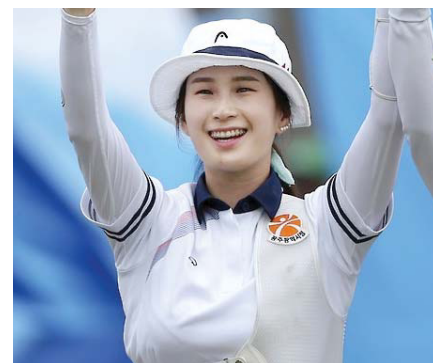
매킬로이는 왼발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칩샷과 퍼트 연습을 꾸준히 했다면서 쇼트 게임은 여전히 정교하다고 덧붙였다.

14일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의 휘슬링 스트레이츠 코스에서 열리는 PGA챔피언십에서 매킬로이는 세계랭킹 2위 조던 스피스(미국),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잭 존슨(미국)과 같은 조에서 플레이한다. /하희철 기자

기보배, 양궁 세계랭킹 1위 탈환

2015년 세계양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기보배(광주시청·사진)가 세계랭킹 1위를 탈환했다.

11일 WA가 발표한 여자부 리커브 세계랭킹에 따르면 기보배는 랭킹포인트 277.750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267.100점을 받은 최미선(광주여대), 3위는 220.250점을 받은 기존 세계랭킹 1위 수징(중국)이었다.

한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이기도 한 기보배를 비롯해 윤옥희(예천군청) 등이 번갈아가며 2012년 8월 이후 2014년 7월까지 2년간 여자부 개인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지난해 기보배와 윤옥희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수징에게 1년간 1위 자리를 내줬다.

남자 리커브 세계랭킹에서는 세계선수권 2관왕인 김우진(청주시청)이 세계랭킹 1위(284.500점)에 올랐다. /김민준 기자 mjkim@

"The Lotte Group, endless Shin Kyuk-ho's health abnormality…what is the purpose?"

롯데그룹, 끊임없는 '신격호 건강이상설' 제기…목적은?

The Japanese-owned Korean business goliath Lotte Group has repeatedly used the issue of CEO Shin Kyuk-ho's health as a springboard for attempts to remove him from powe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This is conflicting with the so-called "Revolt of Brother," which occurred on the 27th of last month following a spot inspection by CEO Kyuk-ho on the 22nd of May.

CEO Kyuk-ho's citations were disputed by the company, which disapproved of his sudden reappearance onto the scene via a dramatic spot inspection after a long absence.

Lotte Group put CEO Kyuk-ho's requests on hold pending Chairman Dongbin's approval, exposing the breach in chain of command which now provides the cornerstone of the Lotte Group's current power struggle. This represents one of the first times the Lotte Group has called into question CEO Kyuk-ho's mental competency.

Lotte Group's official response did, however, refrain from openly supporting Chairman Dongbin saying instead that, "The group's stance is not aligned with Chairman Dongbin's stance. Rather, we are simply criticizing CEO Shin's apparent lack of judgment as well as his unwillingness to follow proper protocol."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한·일 롯데그룹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일 롯데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달 27일 '형제의 난' 이전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 5월 22일 제2롯데월드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했던 당시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여전히 그룹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총기가 여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거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정상이었다가 비정상이었다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전에 일본 재계에서 제기된 신 총괄회장의 한정치산 선고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그룹의 입장이 신동빈 회장의 입장은 아니다"며 "단순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력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6		2			9	1	
	5		6					3
	8			7	4			
		2		5		6	8	
			4		9			
	7	5		1		3		
			5	6			3	
6					3		7	
	2	3			8		6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6			2
		1			2			5
		2	5			3	4	8
	3	7						
1				6				3
						1	2	
3	2	8			1	7		
6			4			8		
4			8			2	3	

스도쿠 정답

7	6	4	2	3	5	9	1	8
2	5	9	6	8	1	7	4	3
3	8	1	9	7	4	5	2	6
9	1	2	3	5	7	6	8	4
8	3	6	4	2	9	1	5	7
4	7	5	8	1	6	3	9	2
1	4	7	5	6	2	8	3	9
6	9	8	1	4	3	2	7	5
5	2	3	7	9	8	4	6	1

8	5	3	7	4	6	9	1	2
9	4	1	3	8	2	6	7	5
7	6	2	5	1	9	3	4	8
2	3	7	1	5	8	4	6	9
1	9	4	2	6	7	5	8	3
5	8	6	9	3	4	1	2	7
3	2	8	6	9	1	7	5	4
6	7	5	4	2	3	8	9	1
4	1	9	8	7	5	2	3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수줍음이 많은데 교육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각오한 일은 무서울게 없는 법… 노력해 보세요

star42 82년 10월 27일 음력 5시반

Q 선생님 최근 상담해주신 답변 감사드리고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교육계로 직업을 전향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무직도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서 안정감 있고 익숙해진 업무라 마음의 불안감이 들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무직만 하고 살기에는 만족감이 들지 않고 즐겁지 않고 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늘 꿈꿔왔습니다. 책보는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 공부하고 준비한 분야에 합격해서 강사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자신감도 부족하고 제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쑥스럽습니다.

A 82년생은 두 가지의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운세가 미완성인 연안대비(燕雁代飛)라 하여 반대의 입장이 되어 만나지 못하니 이를 한탄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배가 돛을 달고 출발을 하였다면 순풍에 힘차게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는데 흰 돛을 활짝 펴고 뱃머리에 흰 파도가 갈라지면서 힘차게 달리는 범선을 상상해보세요.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쑥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중이나 학생들 앞에 나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자신 없는 모습을 먼저 느끼면서 마음속에 불안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 있게 이야기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신의 떨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떨려라' 하고 주문을 외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반대로 머릿속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박수를 받는 장면들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암시훈련이라고 하는데 결코 불가능 한 것도 아닙니다.

실전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암시훈련에 의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횟수는 많을수록 효과적이며 최소한 500회~1000회 이상은 상상하여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각오한 일이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벌써 불안공포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험 없이 의욕만 먼저 앞서는 것은 해(害)를 낳게 됩니다. 2015년은 자미원진(子未怨嗔)의 서먹서먹한 관계로 도모하는 일이 어긋나며 2016년은 충돌을 예상하는데 심사숙고하여 지면상 다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2일 (음 6월 2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큰 업체와 계약이 성사됩니다. **60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72년생** 사랑과 우정,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84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49년생 여행은 좋으나 북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61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 보입니다. **73년생**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보여주세요. **85년생**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세요.

50년생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62년생** 뜻밖의 인연이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합니다. **86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51년생 공익을 앞세워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63년생** 현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세요. **75년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립됩니다. **87년생**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52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64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76년생**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8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일 뿐입니다.

53년생 몸이 아프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65년생** 좀도둑을 조심하세요. **77년생**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4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66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합니다. **78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90년생** 미루지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55년생 체념하지 말고 견디며 나아갈 때 입니다. **67년생** 다툼을 주의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79년생** 어렵겠지만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91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56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57년생 서두르지 마세요. **69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81년생** 친구와 동료간에 모임이나 회식을 가지게 됩니다. **93년생**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세요.

58년생 큰 성공에 욕심을 부리면 크게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70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2년생** 불운을 잘 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59년생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71년생** 마음의 걱정을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83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95년생**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요즘 방송은 '먹방'서 '쿡방'으로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요즘 방송을 보면 바야흐로 '먹방'의 시대다. 국어사전에서 먹방은 캄캄한 방을 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인 말이다.

섹션다큐인 SBS '리얼 코리아', KBS 'VJ특공대' 등이 음식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맛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쇄매체에서 사진이나 글로 맛집을 소개하는 것과 달리 방송은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영상을 내보내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에서 한번 전파를 타면 한 달 만에 일 년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들렸다.

초창기 맛집 방송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점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늘 새로운 소재와 형식을 추구하는 방송은 점차 맛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음식점, 자극적인 재료가 들어가는 음식점 등을 소개하는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형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었다. 대한민국 맛집 치고 방송 전파를 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어느 방송프로에서 봤던 맛집이 몇 개월 뒤 다른 방송프로에 소개되고 또 얼마 지나 다른 프로에서 전파를 타는 식이다.

그러자 요즘은 '쿡방'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사전 용어가 아닌 인터넷 용어로 쿡방은 요리하다는 뜻의 '쿡(Cook)'과 '방송'의 합성어다. 쿡방은 단순히 맛있게 먹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 출연자들이 직접 요리하고 레시피를 공개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러면서 새로운 셰프 스타들을 양성해 냈다. 해외파 요리사를 비롯해 잘생긴 꽃남 셰프, 음식점을 소유한 연예인 등 이들의 인기는 치솟았고 더불어 몸값도 뛰었다.

결국 방송사들은 새로운 인물들을 찾기 시작했다.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아닌 방송에 적합한 즉 외모나 언변이 뛰어난 인물들을 선호했다. 이러면서 이제 갓 요리학원을 졸업한 젊은 친구들이 대거 방송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유난히 쏠림 현상이 크다. 한번 유행을 타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광고 시장이 출렁인다. 정치인들도 그 유행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인기 셰프들이 대거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건강을 챙기고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사람들의 세태를 보면 당분간 먹방이나 쿡방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 실종된 'K 뷰티'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K 뷰티'라고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후' 등 스킨케어 브랜드가 대부분이다.

해외 시장에서 주목하는 K 뷰티의 현주소는 다양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기자는 최근 향수 시장 현황을 취재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한국 화장품 업체는 향수 전문 브랜드 출시에 소극적일까.

국내 화장품 시장 1등이라는 아모레퍼시픽은 자체 브랜드 '롤리타 렘피카'와 인수한 '아닉구딸'을 갖고 있지만 생산은 프랑스에서 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012년 '스티븐 스테파니'와 '코드온'을 론칭했지만 3년여 만에 생산을 멈춘 상태다. 화장품 브랜드숍 역시 구색 맞추기로 향수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종류는 많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향수시장은 워낙 유럽같은 선진시장이 꽉 잡고 있어 국내 브랜드는 웬만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기술 역시 오랫동안 향을 연구해온 선진시장에 비할 게 못 된다.

색조 화장품 역시 최근 빛을 보고 있지만 전문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모레퍼시픽의 에스쁘아, LG생활건강의 VDL·보브 외에 중소 업체에서 립·아이 등 메이크업 제품을 주축으로 색조 전문을 표방한 브랜드를 내놓고 있지만 이런 붐이 일어난 것도 3년이 채 안된다.

이에 반해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국내 시장에서 슈에무라·조르지오 아르마니·입생로랑·어반디케이 등 4개의 전문 메이크업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대한화장품협회가 내놓은 생산실적 자료를 보면 국내 화장품이 얼마나 스킨케어에 편중돼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포화된 스킨케어 시장 다음으로 선택한 먹거리가 색조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생산 실적 점유율은 15.9%로 기초제품류(56.7%)와는 약 3배 차이가 났다. 색조 제품별 생산 실적도 파운데이션(52.9%), 립스틱·립라이너(11.5%), 페이스파우더·페이스케이크(10.5%) 등 일부 제품군 쏠림 현상이 심했다.

얼마 전 아모레퍼시픽이 크리스찬 디올에 쿠션 화장품 관련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소식이 화장품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이는 세계 화장품 기업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방증이다.

다양성이 부족한 K 뷰티는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한국 화장품이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색조·코스메슈티컬(의약 화장품)·향수 등 다양한 면에서 평가 받기를 기대해 본다.

인 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창조행정담당관 박덕렬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성수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김판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파견 박대규

■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이금순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봉호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인정숙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

■ 한국마사회
△발령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고중환 ▷제주지역본부장 전성원 ▷경마관리처장 장동호 ▷광주지사장 정광섭 ▷제주육성목장장 이현철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리노베이션 추진단장 이덕인 ▷말산업진흥처장 문윤영 ▷CS혁신단장 이은도 ▷경영관리실장 최수원 ▷인재교육원장 홍용현 ▷회계팀장 김형권 ▷사업전략팀장 정승기 ▷서울지역본부장 겸 서울경마처장 최인용 ▷정보기술처장 겸 ICT기획팀 박찬욱 ▷감사실장 겸 감사1부장 김진유 ▷경마사업처장 겸 제주기획팀장 고영빈 ▷홍보실장 겸 재활힐링승마센터장 박진국 ▷마케팅처장 겸 발매마케팅팀장 안상식 ▷ICT운영팀장 김종호 ▷중랑지사장 진귀환 ▷질병관리담당 김하기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부학장 윤지영 ▷법정대학 부학장 차재권 ▷상경대학 부학장 한기조 ▷교육대학원 부원장(겸 교육연수원 부원장) 전윤숙 ▷행정대학원 부원장 김상원 ▷경영대학원 부원장 윤태환

■ 한화투자증권
△전보 ▷인사지원담당 손중권(상무) ▷재경2지역사업부장 변동환(상무) ▷펀드지원팀장 한석희 ▷고객자산운용팀장 장성호 ▷총무팀장 오미란 ▷ 신갈지점장 이동준 ▷ 송파지점장 엄영훈

부 고

▲김은숙씨 별세, 김두겸(전 울산 남구청장)씨 빙모상 = 10일, 울산국화원 특실 5호, 발인 12일 오전 8시. ☎ 052-269-4444, 010-8890-3223

▲장문자씨 별세, 남대희(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씨 모친상 = 10일 오후 1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 02-3410-6914

社 說

대학 학자금 힐러리의 대담한 구상

미국에서도 대학생의 학자금 문제가 심각한 듯하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구상을 내놓았다.

힐러리 전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오후 지역주민과의 토론회에서 대학 수업료 보조금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골자는 각 주(州)에 총 1750억 달러(약 203조 원)의 보조금을 연방정부가 지급해 공립대학의 학비를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힐러리 전 장관이 내놓은 구상은 이 기회에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려는 방안인 듯하다.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향후 10년 동안 모두 3500억 달러(약 40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공제를 줄인다는 것이 힐러리 전장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대학생 학자금 문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인당 대학생의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호가한다. 등록금 외에도 교재비나 기숙사비 등을 더하면 해마다 1000만원을 크게 웃돈다. 이렇게 큰 돈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그야말로 한 가정이 완전히 침몰하기 쉽다. 그러므로 대학생 학자금 문제는 단순히 학자금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을 고사시키는 치명적 현안이다.

그러니 우리 나라에서도 무너진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해서 대학 학자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학자금 문제를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절박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힐러리 같은 대담한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첩경이기도 하다.

뺑소니 가해자 불명, 보상금 청구 어떻게?

생활 법률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이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 피해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보상금은 어디서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보상청구권에 관한 절차가 우선 적용되므로 먼저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뺑소니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

특히 동법 제14조 1항에는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뺑소니 피해자는 정부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제출할 서류가 있다.

사고 당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으로 인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사망한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의 증빙서류, 경찰서장 발행의 보유자불명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서류들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뺑소니차에 부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밖에 없다.

보험회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은 국가가 된다.

/이홍원 기자 hong@

ROYAL PALACE

요즘 뜨는 실속형 아파텔 분양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최저분양가 590만원대

주거는 100% 만족!
투자는 200% 만족!

● 전세대 2룸 or 3룸 + 1거실
(모델하우스 개관 중)

※ 전세대 풀옵션 빌트인 제공 및 42인치 TV제공

더 늦기 전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서두르십시오!
실투자금 3,000만원으로
배곧 프리미엄을 누리십시오!

신도시 상권!
대학가 상권!
스퀘어가든 상권!

분양면적 보다 넓은 전용면적
로얄팰리스 상가
특별분양!!

아파트 보다 좋다!

층간소음 無! 화재걱정 無! 세대간층고 3M!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 당)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중도금 60% 무이자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70만원을 번다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한국경제
1920년 3월 5일 창간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시흥 배곧, 교육특구로
경기도·서울대 협약 체결
2015년 4월 6일 발표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문의전화
02)6334-9131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